

희생 제도

Sacrificial System



Gerald Paden 著

BCC-SBI 譯

차례

| | |
|--------------|-----|
| 1. 희생 제도의 구성 | 3 |
| 2. 희생에 대하여 | 12 |
| 3. 번제 | 21 |
| 4. 번제 의식 | 30 |
| 5. 소제와 관제 | 39 |
| 6. 화목제 | 48 |
| 7. 화목제의 교훈 | 56 |
| 8. 속죄제 | 67 |
| 9. 속건제 | 77 |
| 10. 나답과 아비후 | 87 |
| 11. 속죄일 1 | 97 |
| 12. 속죄일 2 | 107 |

1. 희생 제도의 구성

소개

희생 제도는 레위기에 관한 연구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책이 매우 지루하고 아마도 영감을 받지 않은 책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지만, 구약을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연구 가운데 하나가 이 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첫 단원에서는 모세 율법의 희생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구약의 여러 예언에 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표론(typology)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희생을 그림자의 체계 또는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하는 연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문에서 레위기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 역사의 주요 단계를 마무리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입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레위기의 서문이자 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5~6부터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들의 기본 목적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나라가 그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하는 개념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사해야 하는 도덕적 자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율법의 근간으로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율법, 규례, 혹은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한 직임을 수행할지와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희생을 드리는지에 관한 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의 희생 제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율법(언약), 제사장, 성막, 희생. 이 네 가지가 레위기서의 희생 제도에 관한 연구의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레위기의 주요 교훈

레위기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의 통치 아래 사는 매일의 삶과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삶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레위기 전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어가 83 번이나 나옵니다. 이처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모세의 율법 특히 레위기서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크게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의 성소가 거룩하며 희생도 거룩합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는 모든 것이 특별합니다.

레위기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신권 통치"를 세운 방식입니다. 신권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신정(神政)은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이 그의 율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취하기를 원하신 매우 거룩한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이 책과 여기 나오는 예배의 규례로 그들을 성별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이 책에 나오는 여러 희생 제도를 살펴볼 때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희생적 사명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가르치는 네 번째 교훈은 죄의 속성과 그 결과입니다. 레위기는 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좌절시키고 깨뜨리기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교제를 해치며 언약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죄와 사람이 저지른 악행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고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하므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서는 희생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다음 교훈은 이 모든 희생 제사와 제사장과 성막과 언약의 제도가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가 하

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초등 교사나 유치원 교사 역할을 했다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그가 이루신 사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듯 레위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사람의 소망과 충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규제하려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규정한 책도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물리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의 규례를 어긴 예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예배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만 그가 정하신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레위기에서 배우는 그다음 교훈은 거기에 나오는 상징을 통해 특히 절기를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 제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희생 제도를 통해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의 교제에만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 너머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교제를 갖는 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신자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히브리서 3~4장).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선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의 원리인 의식과 규례와 명령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법이 되려면 그 율법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그 거룩한 규례를 어기는 사람을 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의 주요 시대마다 그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 모세시대, 그리스도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어진 법을 지켜야 했으며 전적으로 각 시대에 주어진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희생이 피에 의한 구속에 필수적인 개념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레위기에서 17장 10~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피를 먹지 못하게 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

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히브리어 원문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에스겔 18:4)하고 말할 때 이는 그 영혼이 죄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다른 무엇이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희생적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그 피를 흘릴 때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자원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게 될 사실을 상징합니다. 레위기는 “피로 이루는 구속”的 개념을 모세 시대의 모든 희생 제도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 제도가 실제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도 율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희생 제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점을 레위기에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에 나오는 희생 제도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레위기가 보여주는 이 모든 희생이 언젠가 반드시 모두를 위해 단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희생의 실체를 상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희생은 다름 아닌 예수 그 자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이 영구적인 제도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그 희생제도에 증거로 나타내주셨습니다.

레위기의 희생 제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약의 두 가지 주요 예언적 형태

그러므로 레위기의 제도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어떤 점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 주요 예언적 형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언어적 예언(verbal prophecy)’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형태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생애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언어적 예언’이 무엇인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 6~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희생 후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

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몸이 썩게 두지도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6편에서도 이 점을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나시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18절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몇 세기 이전에 이미 그에 대한 자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3절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예언의 한 형태입니다.

‘체계적 예언(system prophecy)’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형태의 예언이 있습니다. 체계적 예언은 일련의 사건, 사람, 상황 및 활동이 예언적 형태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한 ‘체계적’ 예언은 전체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의 어떤 측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 뱀을 백성들 사이에 보냈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물려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뱀으로부터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의 상징을 만들고 이스라엘 캠프의 중심에 그것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 뱀에게 물린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캠프의 중심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뱀을 바라보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일련의 사건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요한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예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은 예언적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 뱀은 상징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 예언입니다.

출애굽기에 일련의 사건을 묘사한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광야로 데려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4장은 예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악의 애굽에서 끌어내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끄는 출애굽을 따르는 그의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셨던 밤이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기념하신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유월절을)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그는 유월절을 예언으로 여기시고 그 예언을 자신이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 성취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에 대한 기대가 자동으로 수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가 유월절에 담긴 예언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유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유월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가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졌고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 예언입니다.

흥미롭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들어 있는 히브리 유월절 양과 관계된 예언의 자세한 내용 가운데 그 뼈가 꺾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46). 양의 어떤 뼈도 꺾이면 안 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가 처형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36).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의 다리는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왔을 때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뼈를 꺾으면 그들의 죽음을 재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여전히 살아 있어 명절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히브리의 유월절 기념에서 이미 확증하듯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일부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듯 장치적 예언은 우리의 확신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미리 아시고 유월절의 예표에서 미래의 역사를 확증하기 위해 뼈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도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창세기 7장의 홍수와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병행시켜 예언적인 비유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넘쳐나자, 하나님은 또 다른 홍수인 죄를 파괴하기 위해 격렬한 물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물을 통해 구원받은 여덟 영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3:20). 21절에서 그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파괴한 물리적인 홍수에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듯 구약의 홍수에 예언의 형태가 들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인의 세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홍수의 물이 노아를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들어 올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세계로 옮겼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의미를 지닌 물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사야 35장에서 선지자는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발견합니다. 길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로가 있을 것이라”하고 말합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져다주실 영적인 실체에 대한 몇 가지 물리적인 삽화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진정한 에덴동산으로 변할 사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보게 될 것이며 저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적 실체에 대한 육적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사막을 영적 에덴동산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적용의 육적 표현입니다.

예표론 – 모형과 본형

구약은 “예표론”이라고 불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를 정의하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투포스’와 ‘안티투포스’입니다. ‘투포스’는 모형이며 ‘안티투포스’는 본형입니다. 이것은 상대형입니다. 이는 건축의 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설계도는 장차 건물이 될 구조를 놀랍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여자가 천을 잘라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본(모형)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형은 미래의 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날 것들의 모형입니다.

하브리서의 기자는 구약의 제도와 신약의 제도를 병행으로 두고 모형과 원형의 개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

예표론에는 “그림자와 실체”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던져주는 것은 실체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림자라는 개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3~4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출애굽 여정이 궁극적인 실체인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 안식일도 그런 맥락에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갖게 될 안식의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기자는 히브리인의 이전 성전인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구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에 대한 영적 실체를 예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병행시켜 대조해 주는 헬라어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림자’와 ‘모형’의 ‘복사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헬라어 단어는 ‘스키아’(그림자), ‘후포데익마티’(모형), ‘투포스’(복사본)입니다. 히브리의 이전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래 성소의 그림자 모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복사본)은 구약의 제도를 나타내주는데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신약의 원형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제사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원형으로 깨끗하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유대의 희생이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히브리 희생은 그림자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17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음식에 대한 요구 사항, 즉 그들의 음료, 절기, 새로운 달(월삭), 안식일 등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유대인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원형)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구절은 목적이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장차 올 영광과 왕국 백성의 의무에 대해 이와 같은 형태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그림자는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를 던져주는 실체를 요구합니다. 창세기 1장 26 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지적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실체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요구합니다.

그림자에 대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림자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던져주는 실체가 없는 그런 그림자는 없습니다. 나무의 그림자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종종 원형이 다다르기 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해 질 녘에 비행기 그림자가 당신의 눈앞을 지나칠 때 그것은 비행기가 당신과 태양 사이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그림자는 실체가 보이기 전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듣게 되고 비행기의 그림자는 단지 비행기라는 실체가 던져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의 희생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

히브리서 9장 23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본질상 다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단번의 희생으로 유대 희생 제도의 서로 다른 많은 부분을 망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많은 희생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리스도 희생의 단면을 예측하고 예시하며 예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히브리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봉헌으로 나타납니다.
- 소제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속받은 사람들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화목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가져주는 화해로 나타납니다.
-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나타납니다.
- 속건제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수호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 속죄일은 구약의 모든 희생의 예표를 성취하는 희생뿐만 아니라 그 희생과 관련된 제사장적 기능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 유월절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붉은 암송아지 희생은 죄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육적, 영적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희생 제도를 연구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희생이라는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희생에 대하여

소개

희생 제도를 연구하는 목적은 레위기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대중 읽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각각의 희생 제도에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각의 희생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언뜻 비슷하게 보이지만 매우 독특한 점이 나타납니다. 본 과를 연구해 보면 그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희생과 독특한 의식, 희생 동물, 소제와 관계에 요구되는 재료 등을 연구할 것입니다. 예배와 희생적 대속의 속성에 대한 자세한 정의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희생과 대속의 희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생과 모세의 율법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사이에도 분명한 율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희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지 않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한 두 가지 큰 희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연구하려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지 않는 두 번째 희생은 붉은 암 송아지 희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희생은 모두 레위기에 나옵니다.

희생에 관한 중요한 교훈 모세 율법에 나오는 희생 제도의 특성

각각의 희생 및 그 특징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희생마다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희생에는 거기에 연관된 독특한 의식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생들이 서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속죄제는 화목제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희생은 독특했습니다. 희생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나 재료는 동물과 식물에서 취합니다. 그리고 희생마다 각각 독특한 희생의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입니다. 희생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희생에 바쳐지는 동물 또한 독특했습니다. 동물 희생에는 항상 피 흘림이 따랐습니다. 그와 같은 대속의

요소는 그 희생들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요구되지 않았던 다른 희생도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히브리인은 각자 들에서 얻은 수확의 첫 열매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소제인데 때로는 수확물을 가공해 만든 관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한 첫 열매로 바쳤습니다.

예배 희생

희생마다 한두 개의 필요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예배 희생은 “향기로운 냄새”의 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희생에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개인이 드리는 헌신은 모두 향기로운 냄새의 예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은 번제단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 기둥 속에서 희생 제물은 향기의 형태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희생은 단에서 연기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갑니다. 희생 제물은 파괴되나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바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기로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두 가지 독특한 희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은 예배에 속합니다. 그것은 향기이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입니다.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봅니다. 희생된 동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의 표현인 연기로 변하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레위기 1:9). 그 용어가 의미하듯이 그것은 하나님께 좋은 향기였습니다. 예배 희생 가운데 첫 번째는 번제였습니다. 이를 통해 히브리인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성별했습니다. 두 번째 희생은 소제입니다. 이 희생에서 히브리인은 자신이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성별하고 감사의 표시로 바쳤습니다. 번제를 개인이나 국가 단위로 드렸듯이 소제 역시 개인별로 혹은 국가 단위로 바쳤던 희생이었습니다. 예배 형태의 세 번째 희생은 화목제로 불리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이것은 개인별 혹은 가족별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뻐하는 가족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희생은 예배자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언약의 요구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예배는 자연스럽고 고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입니다.

대속의 희생

다음 희생은 대속의 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을 때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경우 죄를 범한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훼손됩니다. 그럴 때 죄인이 드려야 할 첫 번째 희생이 속죄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처음 다섯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다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처음 다섯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훼손했을 때 그 교제를 회복하기에 앞서 속죄제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속건제는 십계명의 나머지 다섯 계명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또 다른 613개의 규례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613개의 율법 조항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의 확장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어긴 경우에는 어긴 사람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속건제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불가능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속성에 반해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드렸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반했을 경우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속건제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로 큰 대속의 희생은 히브리어로 '옴 키푸르'라고 부르는 속죄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홀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거국적인 희생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희생까지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옴 키부르 희생은 본 시리즈 마지막 두 과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희생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모세의 율법에 따른 희생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위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려면 물론 그 이전 족장시대에도 그랬지만 항상 먼저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벌여 놓은 후 그 나무 위에 희생 제물을 올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희생

예물이 연기로 바뀌어 하늘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사람이 불을 지피는 것은 희생 제물을 위해서입니다. 아벨도 에덴동산 그늘에서 번제를 이처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언어에서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이차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었지만, 결핍이나 개인적인 단념, 혹은 자기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포기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 자신이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개념을 더한 사람은 아마도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개인적인 결핍이라는 개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의 중요한 개념은 레위기에서 보여주듯이 개인적 결핍이라는 개념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길들인 동물이 희생 제물로 요구됨

모든 희생 제물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길들인 가축이라야만 했습니다. 길들인 가축이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희생에 대한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8-17절에 맨 처음 바친 언약의 희생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당시 요구되었던 동물은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였습니다 (창세기 15:9). 이 모든 제물은 그 떼로부터 취한 것으로 길들인 가축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와 염소와 양은 각각의 떼에서 취한 것입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했습니다.

희생 동물을 고르는 요건

희생에 사용된 동물의 첫째 요건은 길들인 것이라야 한다는 점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길들인 동물이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물이 희생을 바치는 사람과 가깝다는 점을 나타내주었습니다. 이는 그 제물들이 사냥이나 몰아서 잡힌 희생 제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떠나 방황하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난폭하거나 길들이지 않은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는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야생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게걸스러운 동물도 아니었으며 사자나 독수리 같은 야생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갈보리 십자가로 끌려 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동물들은 그 환경 속에서 불행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희생 동물은 하나님의 법, 죄, 죄를 위해 생명을 대속으로 바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자원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는 희생적 대속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길들여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순결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한 동물이 되기 위해서 그 동물은 “초식동물”이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초식동물의 특성상 채소를 먹는 동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자나 독수리 같은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생명을 파괴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 했던 분입니다.

희생 동물은 길들인 것이라야 하며, 초식동물이라야 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동물이 흠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동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완전성과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희생 제물로 받아들여지는 흠 없는 제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22장 20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흠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흠이나 상처나 난 동물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수컷이 선호됨 – 힘의 상징

희생 제물로는 일반적으로 수컷 동물이 선호되었습니다. 수컷이 가장 일반적인 희생 제물이었는데 그것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풍요의 상징으로 암컷을 희생으로 바치라고 특정하신 때도 있습니다.

식물, 채소, 곡물과 과실즙

식물이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채소, 곡물 혹은 곡물로부터 나오는 즙이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이 먹기에 적당한 음식으로 재배되어야 했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곡물이 아니었습니다. 야생에서 자라거나 산자락에서 자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동으로 얻은 첫 열매라야 했습니다.

번제에서 사람은 상징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

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제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별하는 것입니다. 성별된 곡물은 가공하지 않은 형태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가루로 만들거나 볶아서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케이크나 전 모양으로 만들어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희생은 히브리인에게 깊은 영적인 면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의식은 그들의 헌신을 나타내는 기회였습니다.

희생의 중요성

희생들은 그 중요성대로 레위기에 그 순서가 나와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희생들이 적절한 순서대로 나온 것을 봅니다. 번제가 속죄제에 선행된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속죄제가 희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번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성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속죄제는 성별의 표준을 훼손했을 경우 드리는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대속의 희생제가 필요하기보다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성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생애가 그러했듯이 성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에는 대속이 필요 없습니다. 성결이 대속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성결하면 그의 삶 속에서 대속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큰 희생은 레위기에 나오는 순서에 따르면 소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예배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세 번째 큰 희생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배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들은 대속을 위한 희생에 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에 있다면 향기로운 제물인 예배 희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그들이 저지를 죄를 위해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은 예배자가 자신의 삶이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자가 어느 때든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희생 모두 유대인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손상되었다고 느낄 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은 온 나라에 걸쳐 일 년에 딱 한 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의 장소

이 희생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단은 성막 끝에 있는 번제단이었습니다. 그곳은 예배자와 희생 제물이 놓이는 곳으로 하나님에 인정하신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제단”에 해

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쓰베아’입니다. 그것은 희생 제물을 죽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면 예외 없이 그 제단에 올려 그것이 ‘연기’나 향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 예외 없이 자신을 그 제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그 제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대속하는 동물의 피는 제단 위에 놓입니다. 모든 희생 제물에서 제거된 지방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져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소제도 마찬가지로 제단에 올려 그것이 연기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관제는 제단 위에 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제단 밑에 부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이 제단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제단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의 크기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의 헌신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 제단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출애굽기 20:24). 신명기 12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찬양의 희생과 대속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신 그 제단과 그 성막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규정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기 위한 특별한 불

제단에 놓인 제물을 태우는 불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개의 다른 단어로 정의되었습니다. 예배의 희생을 사르는 ‘카타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불인데, 히브리어로 ‘카타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희생을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불이 제물을 불사르거나 태운다기보다는 희생의 연기로 변화시켜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영어의 ‘cauterize(뜸 뜨다)’의 어원이 히브리어 ‘katar(카타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희생입니다.

이 대속의 희생을 사르는 또 다른 불이 있었습니다. 속죄제와 속죄일에 드리는 일부 희생은 히브리어로 ‘사라프’라고 부르는 불로 태웠습니다. ‘사라프’는 ‘세라핌(스랍 천사)’의 어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비처럼 내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은 찬양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니다. 불은 불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을 특징짓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불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는 세 번째 불이 있는데 그것은 아바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린 '이상한 불'일 것입니다. '이상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르'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하나님에 인정하지 않는 모든 요소, 행동,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이 바치는 희생을 위해 하나님에 의도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기면 예배가 혀될 뿐만 아니라 대속 자체도 혀되고 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도가 규정을 어긴 사람에게 내립니다.

희생 의식

각각의 희생 절차가 독특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절차에는 깊은 의식이 포함되지만, 그것이 단지 의례적인 의식이나 절차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희생을 거룩한 절차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적 현신이 따르지 않는 외적인 희생의 의식도 있습니다. 각각의 희생에 바쳐지는 동물에 특징이 있는 것처럼 각 절차에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의식들이 특정 부분에서는 서로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각각의 희생마다 그 희생에 따르는 핵심적인 개념이 드러납니다. 각 의식의 독특한 면은 각 희생의 독특성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희생을 위한 대속에서 피는 어디에 뿌려질까요?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희생 제물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몸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불 속에서 완전히 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두 바쳐지는 것일까요? 어떤 희생은 집전하는 제사장이 성막 뜰에서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축제처럼 불사를 수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들의 중재를 하나님은 이렇듯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의식의 진행을 통해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들의 역할을 경축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희생에서는 저질러진 죄에 대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분노처럼 불이 희생 제물의 몸이 불살라지기도 했습니다.

희생이 절차적이고 의식적이었지만 깊은 영적 의미가 내포된 장치임

의식이 행해질 때 각각의 희생에 들어 있는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을 드리는 예배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요? 예배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의식을 집행하도록 자신은 뒤로 물러나기 전에 그가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였을까요? 죄인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가 할 수 있는 한계와 제사장의 한

계는 또 어디까지였을까요?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드리는 희생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절차적이고 여러 가지 외적 의식을 띠고 있었지만, 히브리 백성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장치입니다.

3. 번제

이번에는 히브리인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드렸던 번제를 연구합니다. 이 희생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모세 율법에 나오는 다른 어떤 희생보다도 우선합니다. 이에 관한 의식도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 희생에서 드리는 동물과 그 의식은 이 번제가 히브리인에게 가르치는 근본적이고 영적인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번제는 희생 가운데 “향기로운 냄새”이며 원래 예배적인 희생입니다.

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헬라어로는 ‘홀로코토마’로 번역합니다. 영어의 ‘홀로코스트(holocaust)’가 이 헬라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홀로코스트’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희생에는 완전히 파괴한다는 뜻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희생은 단지 연기 기둥으로 바뀌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가장 하나님 중심적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희생인 번제

히브리 희생 중에서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에 번제가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순수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희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입니다. 불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예배자는 그 희생에 함축된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커다란 숨으로 그 희생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깊이 숨을 들이쉬시면서 “이 냄새가 좋구나”라고 말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희생을 통해 나타내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희생

이것이 제일 중요한 희생인 이유는 가장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이 희생이 완전히 불에 태워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희생의 어떤 부분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이 외의 다른 동물이나 곡물 희생은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일부 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희생이 소멸하거나 타버리지 않았음

히브리인에게 이 희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소멸하는 희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화제(번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희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가 되게 할지니라.” 희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향기가 됩니다. 여기서 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올라’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성별하는 예배자를 상징

희생 동물은 예배자를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 동물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곧 예배자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동물이 온전히 성별 되어 그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듯 이 희생을 드리는 히브리인의 마음속으로는 영적으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동물 희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듯 저의 삶도 주님만 기쁘게 하는데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세 율법에 나오는 모든 희생은 대속을 위해 바친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곧 예배자를 대신하여 바쳐지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희생 동물에게 일어나는 물리적인 일이 영적인 면에서는 예배자 자신에게 일어나야 했던 일이며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저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번제의 속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단 위에서 이삭을 바쳐 향기로운 냄새로 하늘에 올라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번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끝난 후 무엇이 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는 것은 재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배우기를 원한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 이삭을 남김없이 나에게 바쳐라. 나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원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는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종과 함께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5절).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하나님

께 예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들에게 그것을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 표현이 번제의 예배적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흥미로운 말을 덧붙입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바쳐도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 15,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그와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장차 큰 후손과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인데, 그것은 이 아들 이삭의 씨(후손)를 통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재로 만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재로 변한 이삭에게도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나는 그 아이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 나에게 그 아이를 바쳐라. 아무 조건 없이 바쳐라. 그의 전부를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 위에 눕힐 때 이삭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삭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해했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을 죽여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막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가까운 곳에 그 뿔이 수풀에 걸린 숫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이삭을 대신해 제단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대체입니다. 그 양이 이삭 대신 대속의 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삭이 무엇을 보기 원하셨을까요? “이삭, 그 양은 너를 대신한다. 그러나 나는 네가 이 사건을 통해 네 책임에서 놓인 것은 아님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나의 희생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너의 전 생애를 나에게 바침으로 살아 있는 희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제단에서 그 양이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갈 때 이삭이 무엇을 생각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이삭은 그 양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재로 남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이 계속해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살아 있는 희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바친 곳을 가리켜 여호와이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삭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예비하신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도 대속의 희생제물을 주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

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 바로 이 점이 번제가 그들에게 그처럼 깊은 중요성을 주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고 드리는 기회이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은 마계도냐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번제로 비유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히브리 희생의 가장 큰 공통점

번제는 또한 히브리 희생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배 행위 가운데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드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드리는 희생 가운데 가장 중심적이었습니다. 개인은 어느 때든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온 나라를 대신하여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매일 이와 같은 희생이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6장 9, 12, 13절에서 하나님은 번제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9절). “끊임없이 제단에 피워”라는 말씀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이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할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의 나라인 너희의 헌신이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너희 자신을 나에게 바치는 너희 예배는 결코 끝나면 안 된다. 너희 예배는 어느 계절에 한정적이거나 산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나에 대한 너희의 헌신이 이렇게 계속 표현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는 단지 안식일에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그에게 이와 같은 희생적인 헌신을 매일, 매월, 매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히브리 희생이 드려진 제단은 전통적으로 “번제단”이라고 불렸습니다. 번제 또한 예배 행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예배와 모든 절기 특기 안식일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 중심이며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희생

이미 언급한 대로 번제는 가장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런 점에서 가장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희생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가장 높은 헌신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빛진 존재입니다. 첫째, 인간의 창조가 그렇고 둘째, 죄로부터 구속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인의 이와 같은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하는 데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선함에 대한 인식 가운데 순전한 사랑과 헌신이 충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결이 대속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분명한 이유로 번제는 속죄제에 선행합니다. 지난 과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성결은 대속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속은 성결에 대한 훠손이 있을 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혼신과 성결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가장 오래된 예배

번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희생입니다. 실제로 번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첫 번째 희생이기도 합니다. 아벨이 에덴 동산 저편에서 드렸던 번제에서 그 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1). 노아가 홍수 후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방주의 정결한 동물 중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희생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후손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무지개로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 의식과 그 진행 과정

번제 의식과 그 진행 과정은 희생에 담긴 혼신의 단면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감을 보여줍니다. 지난 과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각각의 희생에는 독특한 의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그 단계들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의식의 단계는 히브리인이 배워야 할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번제의 첫 번째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가 있는데, 실제로는 의식을 마치기까지 여덟 단계를 거칩니다. 나머지 네 단계는 다음 과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각의 단계는 예배자나 제사장이 담당하는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각각의 의식은 저마다 독특한 메시지를

첫 단계: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이 순간부터 그 동물은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둘째 단계: 예배자가 자기의 한쪽 손을 대속의 희생제물에 얹습니다.

셋째 단계: 예배자가 대속의 희생제물을 죽입니다.

넷째 단계: 제사장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첫째 단계: 바침

이제 첫 번째 단계인 바침을 보겠습니다. 영어로 ‘바치다(present)’라는 단어는 명사와 동사로 쓰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를 정의할 때는 동사로 쓰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음절(-sent)에 강세가 놓입니다. 드리는 물건 자체를 가리킬 때는 명사로 쓰입니다. 이 경우 강세는 첫음절(pre-)에 놓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배자가 자신과 희생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단계는 이 의식에서 의도된 것입니다. 예배자가 희생 동물과 함께 히브리의 제단 앞에 나타날 때 그는 자신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동물을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속건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희생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순간 이후로 동물은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이제 더는 예배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희생 동물은 가축의 떼에서 가져왔거나 새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바침은 예배자에게 그의 희생을 바칠 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게 해 주었습니다.

바치고 난 후 예배자가 바로 뒤돌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나머지 단계들을 통해 히브리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각 단계별로 옮겨갈 때 예배자가 직접 그 희생에 참여하거나 그를 대신하는 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예배자는 희생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그의 마음을 헌신합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온전한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저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의식에 자신을 온전히 몰두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 예배자가 희생제물에 한 손을 얹는다

둘째 단계: 이제 예배자가 자기의 한 손을 희생제물의 머리에 얹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 동물을 가져왔거나 자기 소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치는 순간부터 그 제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을 희생

제물의 머리에 얹는 것은 그것이 자신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얹음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이 동물을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흘리는 희생의 특징입니다. 예배자 개인적인 손 얹음이나 속죄일에 온 나라를 대신하는 제사장의 손 얹음이 있습니다.

손 얹음(안수)을 통해 그 동물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됩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서 손 얹음에 대한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을 먼저 그 사람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그 손을 신성 모독한 사람의 머리에 얹을 때, 그들은 그 죄를 그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3절에 손 없는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을 그 위에 얹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력을 그에게 옮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얹는 세 번째 예는 항상 무언가를 지정하거나 대신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음을 나타내줍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다른 모든 족속의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했습니다. 어느 족속에 속했든지 첫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성막으로 데려옵니다. 그와 동시에 레위 족속의 아들도 데려옵니다.

처음 난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출애굽기 13:2, 12).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통해 그를 대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손을 레위 족속 아이에게 얹으면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첫 아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속죄일에는 아론이 자기 손을 아사셀로 불리는 염소의 머리에 얹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부터 보면, 아론은 그의 손을 염소의 머리에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 후 그 염소를 진영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모든 죄가 상징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에서는 예배자가 그 손을 희생의 머리에 얹을 때 상징적인 면에서 자기 죄를 그 동물에게 옮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의 죄를 위해 그 동물이 그 사람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계: 대속의 희생을 죽임

의식의 세 번째 단계는 희생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속의 희생을 죽이는 것은 예배자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에 죄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배자가 그 대속의 희생을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죽이다’라는 히브리어는 ‘샤하트’입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죽임을 의미합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 ‘티렛샤’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대속의 동물을 죽이는 ‘샤하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희생을 위한 죽임입니다.

예배자에게 자신의 희생제물을 죽이는 것이 요구된 이유는 그 희생제물이 예배자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그 희생제물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이 동물의 생명이 자신을 대신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자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대체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대신할 희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물을 죽이는 과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늘의 형벌을 예배자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에스겔 18:4). 예배자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렇게 동의하는 셈입니다. “나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인이 자기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미워한다. 나는 그 죄를 죽였다. 나는 그 죄를 없애기를 원한다. 나는 죄를 부인한다. 나는 나를 대속하는 희생 가운데 그 죄를 파괴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향해 똑같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안에서 자기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죄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희생제물을 죽였습니다 (레위기 1:5). 그 희생 동물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반해 지은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결을 훼손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제물에 그 손을 얹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법 없

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23).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베드로전서 2:24). 우리가 구속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번제의 기타 의식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과에서 우리는 이 희생 의식의 많은 절차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해 볼 것입니다.

4. 번제 의식

개요

이번 과에서는 전반적인 번제 의식을 살펴본 후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의 표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이 번제가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지난 과에서 살펴본 각 의식의 단계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치는 단계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예배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을 대신할 희생 동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 순간 이후로 그 동물은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배자가 자기 손을 동물의 머리에 얹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실제로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 동물 “위에 기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자기 죄를 그에게 옮기는 행위이지만, 문자적으로 죄가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 동물에게 죄가 실제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일뿐입니다. 히브리인은 이를 통해 장차 하나님이 죄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예배자가 그의 희생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의 희생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번제 의식

네 번째 단계: 피 뿌림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단계를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배자가 관여하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예배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그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의식의 나머지 부분을 관장하는 제사장을 의지해야 합니다. 피를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피 뿌린다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라크’인데 이는 문자적으로 ‘튀겨서 적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배자는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 동물과 율법에 따라 속죄의 중요한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손을 얹음으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죄를 그에게 옮깁니다. 그를 우리의 희생 제물로,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그를 의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피 뿌리는 제사장 역할을 완수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을 영적인 면에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덮으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 역시 빌라도의 뜰에서 폭도들과 함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라고 외친 폭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정죄하는데 우리 목소리를 더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극악무도한 우리의 죄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못을 박아 그를 죽이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실질적인 책임이 우리 죄에 있습니다.

희생 의식에서 피 뿌리는 방식은 그 희생 의식이 대속의 의미를 얼마만큼 지니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떤 희생들은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경우 대속이 그 희생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에는 피를 지성소 안으로 들고 갔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죄의 경우 대속은 그와 같은 희생에서 부가적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했던 다른 단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대속의 개념은 그 희생의 더 중요한 목적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성별된 삶에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피는 성막 뜰에 있는 제단 곧 번제단 아랫부분에 제사장이 뿌렸습니다. 번제 희생이면 이렇듯 번제단 옆에 피를 뿌렸는데, 이것은 대속이 이 희생의 핵심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속죄제와 속죄일에는 피 뿌림이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이 그 희생의 주목적이고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제의 경우는 성별이 주된 목적이었고 대속은 이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의 경우에는 피를 제단 아래에 뿌렸습니다. 이는 제단 아랫부분 전체에 뿌렸다는 뜻입니다.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단을 세우라고 지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서 언급한 복은 틀림없이 그들의 죄에 대한 대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 뿌림은 대속이 부가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피조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언급한 너희의 ‘생명’은 영혼을 뜻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 집의 문설주에 뿌릴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출애굽기 12:13). 번제에도 이와 똑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다섯 번째 단계: 동물의 가죽을 벗김

피를 뿌린 후 제사장이 희생의 가죽을 벗깁니다. 이는 가죽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가죽을 제거하지 않는 유일한 희생은 붉은 암송아지 희생이었습니다. 암송아지는 번제단 위에서가 아니라 진영 밖에서 희생제로 드립니다. 암송아지는 가죽을 포함해 그 전부가 완전히 불살라지며, 그 재는 정결례에 쓰였습니다.

가죽을 왜 벗기는지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첫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만드신 것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벌거벗음을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에덴동산의 사건과 이 희생 사이에 어떤 상징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번제에서 가죽은 죄인에게 주지 않고 번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이 레위기 7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한편,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의로 옷으로 입히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27). 그러나 이것 역시 가죽을 받는 이가 제사장이지 죄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생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그 동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죽을 벗기면 성막 뜰에서 탈 때 나는 텔의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텔 있는 가죽 채 동물이나 새를 계속 불사르면 텔이나 깃털이 타는 냄새가 불쾌할 것이며 거기서 섭기는 제사장들에게 좋지 못한 냄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텔이 불에 타면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가죽을 벗겼다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희생을 두 부분으로 나눔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가운데를 나눕니다. 희생의 반쪽은 왼쪽에 놓고 나머지 반쪽은 오른쪽에 놓습니다. 이것은 셈족이나 히브리인이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히브리 두 사람이 땅을 파는 것과 같은 계약을

맺을 때 쌍방이 각자 그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는 방식을 확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한 의식으로 동물을 둘로 나누어 쌍방이 그 두 부분 사이를 실제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물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옵소서. 만약 내가 이 언약을 깬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가운데로 나누어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소서.”

히브리인은 이런 방식으로 언약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예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동물을 가져다가 한가운데를 나누어 서로 마주 보게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창세기 15:17-18).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횃불은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의 상징이었습니다.

희생에 요구되는 동물은 붉은 암송아지, 염소, 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였습니다 (창세기 15:9). 이런 동물들이 후에 레위기에서도 요구하는 희생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희생 동물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5:10). 희생 동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2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서 벗어난 것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4장 17~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렇듯 언약을 맺는 이 제도는 진지한 책임이 따름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번제 의식에서 희생 동물을 쪼개는 데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과정은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희생에서는 예배자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며, 예배자가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의식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에서 예배자가 실제로 쪼갠 희생 동물 사이를 지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 두 부분 사이를 마음속으로 지나면서 하나님과 예배자,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내장과 정강이를 씻음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제사장이 희생의 몸체에 붙은 펫물을 씻어 제거하는 것입니다. 피는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는 대속을 위해 제단 위에 뿐였습니다.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였습니다. 모든 피는 대속의 제단에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희생 제물의 몸은 펫물을 제거하기 위해 씻어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희생으로 불순물이 없게 했습니다. 뿐리는 의식에 쓰이지 않은 모든 피는 진영 밖의 깨끗한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 제단 위에서 희생을 불사름

여덟 번째 단계가 의식의 핵심입니다. 이 마지막 과정은 동물의 몸을 번제단 위에서 희생제로 불사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무를 벌려 놓은 후 희생물을 번제로 제단 위에 놓고 불로 살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예배자는 여전히 의식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헌신하고 경건하게 자신을 그 의식에 몰두시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린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보리는 속죄제이지 번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그의 전체 삶이 곧 그의 번제 희생임이 분명합니다.

꺼지지 않는 번제 나라를 위해 계속되는 번제

레위기 6장 8~13절에 계속되는 번제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번제는 개인만 드린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도 날마다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

에도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데, 레위기 6장에 따르면 그들은 매일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 9, 12, 13절에서 하나님은 세 번이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꺼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와 헌신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성별 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위 구절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세 번이나 “그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져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책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였음을 나타내 줍니다. 거국적으로 끊임없이 번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침마다 올라갈 때 영성 있는 히브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막 뜰 번제 단에서 불에 살라 올라가는 저 번제 희생이 저를 나타내나니, 하나님께서 저의 희생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그리고 저녁 번제에서도 자신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번제에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온 나라를 위해 번제를 바치는데, 그것은 이 희생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들의 헌신을 간구하는 책임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예배의 표현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가진 교제의 특권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유대인은 매일 끊임없이 계속되는 번제 희생을 보면서 그 희생을 자신과 연관시켰을 것입니다.

번제의 희생 의식은 몇 가지 중요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여기에는 안수가 없었으며 상징적으로 죄가 옮겨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국적인 이 번제는 대속의 부가적인 요소가 제외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속이 아니라 성별에 중요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바친 동물은 온 나라를 대신하여 바쳐진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개인들의 의식 참여 없이 자신들이 이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번제를 멸시하고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아모스 5장 21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제정하신 이 희생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멸시한다. 거절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번제를 거절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번제의 모든 의식이 개인과 온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두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의식을 행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번제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널리 퍼진 우상숭배와 부도덕을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의 위선을 물리치셨습니다. 희생 예물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깊은 헌신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총체적인 무시를 대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번제

이제 우리는 번제에서 표징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의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희생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번제로 묘사한 구절이 신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에 대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또 나옵니다. “내 기뻐하는 자니.”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읍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36).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성별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쳐 나온 그의 품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사도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저 자신을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는 것은 사도들도 이처럼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예수님에 대해 바울이 언급한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의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으며, 자신을 위한 어떤 여지를 남기거나 죄를 짓지 않으

셨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번제는 그의 32년 지상의 삶을 망라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신 후 흄과 티가 없는 속죄 제물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자신을 올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단에 자신을 헌신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으며, 항상 불이 피어있게 만드셨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은 시편 40편 6절과 8절의 인용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제자들은 그에 관해 기록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는 시편 69편 9절에 히브리어로 쓰인 글을 요한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번제 희생의 모든 그림자를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 성별케 하고 향기가 되게 했습니다. 끊임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꺼지지 않는 불타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함

그리스도인이 끊임없는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구절은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는 아닙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함

로마서 12장 1절에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나오는 ‘드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번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적 행위”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희생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의 불을 끊임없이 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기에 나오는 위대
한 번제의 표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5. 소제와 관계

소제의 목적

히브리어로 고르반은 소제를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됨”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구약에 이와 같은 예물의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물을 받는자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와 받는 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그것은 에서의 호의를 입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는 12지파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요셉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예물을 받는 대상의 존귀함에 대한 인식은 사무엘하 8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한 인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공급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나는 첫 열매를 이스라엘에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그 땅과 짐승으로부터 난 것이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입니다. 번제에서 히브리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소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인이 번제에서 “나의 모든 것”을, 소제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 더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두 희생 모두 히브리인이 자신을 남김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드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기를 바라신다는 점이 이 두 희생에 나타납니다.

소제와 번제의 차이

번제와 소제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희생 모두 번제단에서 불에 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각기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번제에서는 생명이 드려졌지만, 소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에서는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 있었지만, 소제에서는 피 흘림이나 생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소제에서는 죄의

고백도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 희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개념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제 의식이 그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이 희생에서 곡물은 원래의 형태나 날것으로 드리지 않고 가공된 형태로만 드렸습니다. 바치기 전에 최소한 가루로 만들거나 구워야 했습니다. 히브리인은 일반적으로 가루를 케이크(떡)로 가공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번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제도 제단 위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되었으므로 이는 예배의 행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가장 순수한 예배 형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번제에는 이차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소제에는 이차적인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제의 단 한 가지 본래 목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었습니다.

소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별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존귀를 인식하고 매일 남김없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적인 삶과 매일의 삶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사람의 모든 삶 곧 몸과 마음과 영혼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경건한 '고르반'(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일요일(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에 구분이 없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명기 26장에 이 희생의 배경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초기 역사부터 설명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노예가 되었지만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 그들의 감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이 곡식을 추수할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이 희생 제사에서 히브리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
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
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

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맘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6:5-11)

이 희생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의 풍성함까지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젖과 꿀”에서 수학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찬양의 표현으로 드렸습니다.

소제 희생(가루)의 분량

소제에 바치는 곡식의 분량은 추수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레위기 2장 2절에 “기념물”이라고 부르는 “10분의 1 에바”만 바쳤습니다. 히브리 도량형으로 이것은 가루 약 3쿼트(3.5 리터)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하루 필요한 음식의 양입니다. 주님은 사람과 동물과 추수의 첫 열매를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히브리인이 기억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제단 위에 바친 것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이 거룩하지 않거나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법에 맞게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소제의 재료 - 유향

이 희생에 요구되는 몇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향이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향은 항상 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명기 26장의 명령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히브리인은 그들의 영원한 감사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향을 더해야 했습니다.

시편 141편 1~2절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냄새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녁 제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번제를 뜻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번제는 역시 끊임없이 계속되는 소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에서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에게 성막에서 매일 여호와 하나님께 거국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이 기도의 상징임을 확증해 줍니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 곧 스물여덟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서 “각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모두 합쳐 최소한 56개의 금 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요한은 향이 든 접시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더해진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56개의 접시에 더해진 “많은 향”은 아마도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위해 드리는 중재의 기도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재 기도를 나타내는 향이 든 56개의 접시와 “많은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 쏟아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와 함께 그들의 찬양과 탄원에 동참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그의 몸인 교회가 그의 중재 기도로 하나가 될 때 땅 위에서는 즉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그것이 주일 아침에 드리는 연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리는 선물이든 깊은 감사에서 우러나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저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에 감사하는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름은 모든 희생에 들어가야 한다

소제에 더하는 두 번째 재료는 기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감람유나 다른 채소에서 짠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신구약에서 기름은 항상 성별의 상징이었습니다. 번제에서는 희생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성별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제 의식에서도 기름을 더하는 것 곧 기름을 봇는 상징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직임을 위임받는 사람은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거룩한 직책을 맡도록 성별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교제를 성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편 133편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레위기 8장과 9장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그 자손을 제사장의 직임으로 성별할 때의 의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많은 양의 기름(약 3 퀼트)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성별의 기름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헌신 되었음을 나타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9절은 시편 40편 6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려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인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은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수행할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성별 되었음을 나타내줍니다. 그려므로 히브리인은 소제에 기름을 더함으로 성별의 재료를 추가했습니다.

“언약의” 소금

소제에 더하는 세 번째 재료는 소금이었습니다. 신구약에서 소금은 항상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향이 기도의 상징이고 기름이 성별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소금은 항상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관계가 성립된 것, 언약과 그 간의 관계에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번제에서 제물의 가운데를 잘라 언약을 새롭게 하듯이 소제에서 소금은 언약의 간을 나타내기 위해 더해졌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이것이 두 당사자 간에 맺는 언약의 상징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보여주는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레위족속은 제단에서 그들의 분깃을 취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희생으로 드리는 동물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분깃을 취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레위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제는 이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희생이므로 그 언약의 간신과 그 확증으로 소금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그들은 마음속에서 이 세 가지 재료를 영적으로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향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성별하는 기름을 더해야 하고, 그 예물에 언약의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소금을 더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불은 레위기 2장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 불은 사람의 찬양과 감사의 향기로운 희생을 성별케 하는 곳인 제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법을 제정하셨고 그가 제단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언약의 헌신을 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물론 신약교회에 육적인 제단은 없지만, 히브리 희생을 통해 그것을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헬라어 원문에는 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잃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예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일 뿐입니다.

소제에서 제외된 재료

세 가지 재료가 소제에 더해진 것처럼 소제에 제외된 두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누룩이고 두 번째는 꿀이었습니다. 향이 기도를 상징하고 기름이 성별을 상징하며 소금이 언약을 상징하지만, 누룩은 그 특징상 부패를 상징했습니다. 꿀 역시 발효의 재료이므로 소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상 악한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레위기 2장 12절을 보면 그것을 첫 열매로 가져오라고 명령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제에서 제외된 것은 단지 그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월절에서 그들은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부도덕과 우상숭배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들의 “외식(위선)”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척하는 바리새인에 대해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8절에서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희생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그리스도인의 축제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것은 적은 누룩이 전체 덩어리에 번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이 드린 첫 열매

소제에서 나타난 표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첫 열매를 바쳤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구절이 신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은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의미하느냐입니다. 목수 사역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은 구세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첫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첫 열매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 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의 예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첫 열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144,000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유다서 1장 24절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흄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은 구약 히브리인의 소제에 나오는 표징의 성취가 예수님의 심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제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소제가 아니라 영적인 소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수고로 얻은 첫 열매인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적인 예물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 4:18). 이 구절에서 바울은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 개념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처럼 “첫 열매의 예물”은 찬양, 고백,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은 구약의 소제에 대한 표징의 성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해주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전에서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적 희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받으실만한 (희생) 제사”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임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15~16절에 사용한 용어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일꾼”이라는 단어는 “전례를 위한 섬김”을 뜻합니다. 헬라어에서 전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에게 “전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헬라어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복음에 대한 제사장적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은 상징적인 제단에서 하나님 복음의 선물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인 면에서 똑같은 제단 위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 전도자인 자신을 첫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에게 전하는 ‘제사장’으로 보았고, 둘째로 하나님께 개종한 사람들을 “첫 열매”的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와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희생의 첫 번째 단계) 시작합니다.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 있고 거룩하고 받으실만한” 예물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약 소제에 해당하는 신약의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그 예배자는 재정(연보)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를 통해 영원 구원을 위한 그의 열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소제와 관련된 이 모든 표징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다음에는 그의 백성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6. 화목제

여섯 번째 강좌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의 영역에 속하는 세 번째로 큰 희생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배 희생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희생 제사의 독특한 의식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 희생제물의 배치하는 방법이 레위기에 나오는 어떤 동물 희생과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화목제의 목적

영어로는 교제(fellowship)의 희생이라고도 부르는 화목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희생은 사람과 하나님 간의 교제가 강화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모든 희생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그의 가족 간의 화목한 관계를 기뻐하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제 명칭의 중요성

히브리어로 화목제를 “셀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히브리인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화목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복수형 “셀라민”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중적인 성격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이것을 완성의 희생이라고도 부릅니다. “셀렘”은 뭔가 부족하거나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을 완성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이 자기 죄나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느낄 때 이 희생을 통해 그것을 채워서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할 때 먼저 드려야 할 희생은 대속을 위한 속죄제나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전히 먼 관계에 있거나 관계가 손상된 상태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드려야 할 희생은 화목제나 번제나 아니라 속죄제라야 합니다. 속죄제는 대속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축제의 관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축제에 참여하기 전에 화목한 관계의 회복이 항상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희생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동물을 받아 그것을 화목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은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회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축제 희생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회복된 관계에 대한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대인이 어떤 형태로든 화목제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7장 18~21절은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이 이 희생에 참여할 특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므로 이 희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저와 하나님 간의 교제와 연합과 친밀감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화목제의 세 종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화목제

화목제에 세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감사제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 29장 29절에 서는 이것을 “호라”라는 하는데, 이 단어의 뜻도 같습니다. “호라”는 “만세(hooray)”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halleluia!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을 감사의 희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평화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속의 희생을 받으시고 그 희생을 바친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이 받아들여졌으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가장 높은 수준의 화목제인 “호라”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이 호라 동물의 몸은 그 희생의 첫째 잔치날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축제이고 희생의 음식이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난 후 그 가운데 남은 부분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번제에서 나온 집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희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하게 해 주는 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2장 26~31절을 보면 화목제 의식을 적절하게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희생 동물은 흠이나 점이 없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희생제물로 새는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쓰일 충분한 고기를 새에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세의 화목제

두 번째 화목제는 낮은 단계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은 히브리어로 “네더”입니다. 레위기 21장 21절을 보면 이것은 맹세가 따르는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즐거움이 이 희생의 개념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나 그의 가족 혹은 그 두 가지 모두 이 희생을 통해 그의 맹세를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낮은 단계의 희생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5~6절에 따르면 첫째 날에 남은 동물의 어느 부분이라도 둘째 날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그것이 희생과 예배자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했습니다(레위기 19:7-8). 셋째 날부터는 육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나사로의 시체가 나흘 후에 썩는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셋째 날 이른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희생 의식과 셋째 날 이후로는 고기를 먹지 않은 사실 간에 상징적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유 의지로 드리는 화목제

마지막 세 번째 화목제는 자유 의지로 드리는 희생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네데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으로 이것도 둘째 날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의 각 단계

화목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그 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생의 첫 몇 단계는 그 형태가 번제를 닮았습니다. 드림, 손 얹음, 희생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 희생의 독특한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각 단계와 거기에 들어 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 드림

첫 단계는 그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에서 드림의 목적은 히브리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드리는 단계에도 이 희생만의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축제에 참여하려는 소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

므로 드림의 단계에서 히브리인이 희생 동물과 함께 제단으로 나오는 이유가 번제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 간에 있는 영적 연합을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번제와 같았지만, 그 목적은 번제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둘째 단계: 손을 얹음

화목제의 둘째 단계에서 예배자가 손을 희생 동물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면에서 그 희생 동물 위에 “자신을 기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손을 얹는 것을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대신하는 그 희생 동물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희생에도 속죄의 요소가 있지만, 번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속죄는 이차적인 목적 이었습니다. 속죄가 이차적인 목적이었던 이유는 화목제의 주목적이 예배자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희생 동물에 얹는 것은 예배자가 그의 죄를 (특정한 죄를 언급하지는 않음) 대속의 희생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단계: 희생을 죽임

화목제 의식의 셋째 단계는 대속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번제와 같았습니다. 대속물에 자신의 손을 얹음으로 예배자는 자신의 죄를 상징적으로 희생제물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를 위해 속죄하지만, 이 화목제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예배자가 자신의 희생 동물을 죽이는데,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마땅히 자기가 그 값을 치러야 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 이것은 대단히 교육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희생 동물이 죽임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예배자가 어찌 절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 단계: 제사장이 제단 기둥에 피를 뿌림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히브리어로 “자라크”는 문자적으로 “튀겨서 적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피를 번제단의 기둥에 뿌리는데, 이것은 그 희생이 가진 이차적인 목적 곧 예배자가 저지른 죄의 대속을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동물 희생이 그렇지만 예배자는 죄 사함을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모든 기름을 제거

화목제의 다섯 번째 단계는 번제와는 다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희생에는 동물의 몸에 있는 모든 기름을 제거합니다. 모든 기름을 꼼꼼하게 제거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3장 9~10절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꼬리뼈)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혀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껴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화목제의 기름을 “하나님의 떡” 혹은 “하나님의 음식”으로 불렸습니다. 이 용어는 이 희생에 예배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 축제에 관여하셔서 그 음식을 받으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축제에 참여하십니다. 레위기 3장 11, 16절과 21장 6, 8, 17절에 그 기름을 하나님의 떡 혹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간의 축제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교제가 회복됨을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희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배자가 잔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기름이 번제단 위에서 향으로 올라가는 이 단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속죄를 위해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 많은 상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기름은 성결을,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룩과 꿀은 부패와 발효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름도 그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풍요와 동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부분을 그에게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항상 더 좋은 열매였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징적인 면에서 기름은 그 땅의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을 잊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풍부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진 것”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집에서 살진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다가오는 메시아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하늘의 주님이 그날에 풍부한 음식으로 잔치를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풍부”는 히브리어로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 잔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모든 사람을 이끄시는 우주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나누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본문에서 "기름진 것"을 영적 실체에 대한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17절에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온다는 사실에 관해 이와 똑같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헬라어로 "기름")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감람나무 뿌리"는 유대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구원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유대인을 통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초의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뿌리를 통해 주신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기름은 풍요와 최상의 것을 상징합니다. 희생 동물에서 제거된 기름은 제단에 두어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희생의 기름에 참여하는 특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 이하에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제사장이었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성막 문 앞에서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그들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그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제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저지를 극악한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이렇습니다. 화목제에서 기름을 제거한 후 제사장이 종을 보내 제사장에게 속한 고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기름을 제거하기 전에 그 고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취한 가증스러운 일이었으며 통탄할만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 존귀, 예배나 헌신을 사람이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사람이 빼앗아가는 죄입니다. (말라기 3:8 참조)

여섯 번째 단계: 참여자별로 동물을 나눔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동물을 이 희생제에 참여자들의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동물에서 가장 먼저 제거하는 부분은 가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요제"로 부른다는 점입니다. 레위기 7장 31, 34~36절에서 대제사장에게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부른 이유는 예배자가 손으로 그 동물의 어깨를 불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자기 손을 그 희생제물의 가슴에 얹습니다. 그러면 예배자와 제사장 두 사람이 그것을 제단 앞을 향해 흔든 후 다시 뒤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흔드는 것을 두세 번 합니다. 이것은 예배자와 제사장 모두 그 동물의 가슴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으므로 제사장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먹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장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2절에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나라의 뜻(땅)을 받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로 살라 주님께 바쳐진 희생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곧 그들의 소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바울은 이 예를 들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뜻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가슴을 흔든 후 그들은 희생 동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냅니다. 그것은 들어 올린 뒷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예배자가 다시 그 다리를 잡고 제사장은 그 손을 그 위에 얹어 그 둘이 함께 하늘로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 그렇게 한 후 그 부분을 화목제를 관장하는 제사장에게 주면, 그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그의 소득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하늘로 들어 올린 것은 그 동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그 뜻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가슴을 “흔들고” 뒷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이 궁극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나머지 몸의 분배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 동물 희생의 나머지 부분이 예배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부분은 예배자와 그 가족이 (아내, 아이들, 종, 그의 집이나 문 안에 있는 과부나 고아 포함) 잔치 음식으로 취합니다. 신명기 12장 18절과 16장 11절은 그것이 가족의 잔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 가족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 이 희생은 여호와 앞에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가족이 성막 뜰 안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기뻐하도록 했습니다. 성막의 뜰은 이 잔치가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워하는 것임을 나타내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잔치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집에서 주관하는 잔치이며 히브리인은 모두 하나님의 초청한 손님으로 참석하는 자입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교훈

이 화목제에서 우리가 배울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화평이 다중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가족과의 화평,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화평은 물론 자신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성막 끝 곧 잔치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이 곧 그의 임재 앞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왕의 잔치에 초대될 때 그것은 그가 왕과 좋은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줍니다. 그 사람은 왕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교제입니다.

신명기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잔치의 주인이고 예배자는 손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이 그의 집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교제가 허락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할 의미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언적인 면에서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 과에서는 이 점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7. 화목제의 적용(교훈)

7과는 화목제 희생의 결론과 이에 대한 설명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희생에 나오는 구약의 원형을 그리스도께서 여러 모양으로 성취하신 점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희생의 영적 실체가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 인류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한 구약의 예언 평화의 통치

메시아가 오셔서 전 인류에게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는 예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사야 9장 6~7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평화의 근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평화의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를 평화의 근원으로 말하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것은 도살자에게 끌려갈 하나님의 어린양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과 징벌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징벌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에게 얹으신 형벌 곧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싹(가지)/메시아

세 번째 구절은 스가랴 6장 12~13절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에서는 빈번히 “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의 신적 속성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그를 “이새의 싹”이라고 불렀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스가랴에서도 그를 가리켜 “싹”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성전 곧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보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제사장 그 두 직분 사이에는 거기에는 평화(조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왕이 율법을 세우시는 분이며, 그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스리는 왕국은 의와 공평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똑같은 보좌에서 그는 제사장 역할도 하십니다. 제사장은 왕의 법을 어긴 사람들의 죄를 위해 항상 중재하는 자인데, 그가 제사장으로서 궁휼과 용서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자 제사장임

이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서로 대립하는 듯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둘을 완전한 평화로 통합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가랴 9장 9~10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는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는 구약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잔치를 준비하심

화목제의 정점은 희생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것은 성막 뜰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였습니다. 이것은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나타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에 나오는 신약의 몇 가지 실체에 관한 육적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화목제는 그림자였고 메시아는 그 그림자의 실체였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탕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방황하고 죄지은 자녀의 회복을 축하하는 감동적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집을 떠났고 아버지와의 교제를 잊었습니다.

그는 유산을 탕진했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나 탕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돼지의 먹이로 살아보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황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 하늘의 법을 어긴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에게 입 맞추고 종을 불러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특권이 회복됨을 상징합니다. 옷을 입히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영적 벌거벗음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발에 그 집의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비유는 자녀와 교제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축제를 히브리의 성막 뜰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참여하시고 기뻐하시는 화목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왕자의 혼인 잔치

마태복음 22장 1~4절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는 점을 시사해줍니다. 이것은 왕의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이 종을 보내어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대를 무시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초대가 나옵니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나님이 그의 영적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혼인 잔칫집”이 손님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대 연회

이와 매우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4장 15~24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왕이 베푼 큰 연회의 비유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초대했으나 모두 핑계를 댔습니다. 그 연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영적 연회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왕은 그의 잔칫집이 손님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23절). 그러나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24절).

주님의 나라 식탁에서 먹고 마시라

누가복음 22장 24~30절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

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갯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사도들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높은 지위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지위 위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27~30절).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온갖 영적 복이 내리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존귀한 손님으로 식탁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 영혼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섬기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구약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축제를 아름답게 표현해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 들리라.” 이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백성을 위해 주시는 영적 복을 육적인 모양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어느 부분도 주님이 유월절에 세우신 주님의 만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화목제의 그림자 속에 나타나는 잔치의 표징을 성취한다는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이와 같은 성격의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는 제단(십자가)이 없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 복을 “먹을” 전적인 권리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미 폐지된 히브리 제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유래된 영적 “음식”을 먹을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온 후에도 레위기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옛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을 이제 더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에 관한 율법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골로새서 2:14). 골로새서 2장 16~17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실체)은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합

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우리의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단은 갈보리임이 분명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만 갈보리에서 오는 온갖 영적인 복에 참여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로 표현된 영적 유익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어린양은 분명히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라라” (계시록 21:9). 혼인 잔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그의 집에서 준비하신 축제의 잔치입니다.

성막 뜰의 잔치는 회복과 교제를 축하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다

화목제에 바친 희생 (동물의) 몸은 하나님이 예배자와 그의 가족이 잔치를 위해 성막 뜰에서 준비하신 음식입니다. 그 잔치에 나오는 (동물의) 몸은 다름 아닌 예배자의 대속을 위해 바쳐진 피 흘린 몸입니다. 대속이 교제를 회복하고,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축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이 영적 잔치에 참여할 특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은 거기에는 교제가 없으며 잔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우리 죄를 씻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준비된 특별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생 (동물의) 몸이 “하나님의 떡” 혹은 “하나님의 식물”임

화목제 희생이 (동물) 몸을 “하나님의 떡” 혹은 “하나님의 식물(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위기 21:17). 이런 용어는 이것이 단지 예배자만 기뻐하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떡은 실제로 화목제의 기름입니다. 그것이 향이 되어 향기로운 냄새로 제단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이며 그가 기뻐하시는 “식물(음식)”입니다. 탕자와 그의 아버지가 서로 나눈 교제를 기뻐했듯이 레위기의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의 실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실체인 평화의 잔치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오는 영적 유익이 특권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화목제의 표징을 보여주는 신약의 몇 구절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평화의 근원임을 말하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확증해 주는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 평화가 있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갖 물리적인 방해가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이고 영원한 평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이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피가 우리 죄를 없앴으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구절에 두 개의 완료형 시제가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 시제 동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그 결과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평화에 들어갔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계속되는 특권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에 “(믿음으로) 서 있는” 여기서 완료형 동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것은 그 평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계속됨을 나타내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에베소서 2장 11~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평화를 만드신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적대하게 만든 담을 허시고 한 몸 곧 교회 안에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둘 사이에 담을 만든 모세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셨는데, 이제 유대인은 더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모두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7절). 그는 십자가를 통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평화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처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과 이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심

요한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의 병행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레위기 3장과 21장에서 화목제에 바친 (동물의) 몸을 “하나님의 식물(음식)”이라고 부른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레위기의 나오는 표징을 사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과 레위기 3장, 21장은 실체와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없이 모두 먹었음을 보여주는 남은 음식 12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물고기를 수천 배로 늘릴 수 있음을 본 유대인들은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15절). 그들의 계획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들은 육적 몸을 위해 육적 음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그 속성상 육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영적 음식을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들의 육적 몸을 위해 육적 유익만을 공급하는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시면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 사도들은 배에 올라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디베리아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폭풍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갈릴

리 바다 동편에서 예수님을 더는 보지 못하자 그를 찾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5절). 히브리어로 랍비는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지 그가 만드는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예수님임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과 물고기의 기적보다 그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다시 배가 고팠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그 양식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본질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은 “너희는 나의 기적만 믿지 말고 나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그 전날 떡과 물고기를 만드신 기적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메시지를 갖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는데 부족했다는 뜻일까요? 그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먹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도전인듯합니다. “당신이 모세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매일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들은 성경까지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주어진 육체적 만나와 예수님의 오셔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떡”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공급하시는 잔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2절). 만나는 “그림자” 떡이고, 그리스도는 “참된” 혹은 “실체의” 떡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참된 떡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인 언어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육적인 떡을 원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 그들은 여전히 육적 음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 영혼의 모든 갈망과 허기를 만족시키는 분이라는 점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하는 구속의 음식을 가져다줍니다. 평화는 구원의 최종적 산물이며, 오로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8~49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마도 수많은 사람이 만나를 배불리 먹고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음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육적인 음식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그 살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듯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는 사람은 자신을 대속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주님의 만찬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표징 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29절과 마가복음 14장 22~26절, 특히 누가복음 22장 14~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육체)을 희생으로 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갈보리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기념하도록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다락방에서 그의 살과 피를 희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락방에서 그의 살(육체)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살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렇게 말

씀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근원인 그의 희생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갈보리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는 하나님과 평화와 교제를 갖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게 도 해줍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계속 거하기 위해 그 “살”을 먹고 그 “피” 마시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59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연합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 갈보리의 은혜를 받아드리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표현을 유대인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의 희생적 죽음은 죄를 위한 유일한 (그림자가 아닌) 실제적 대속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3~56절)

히브리 화목제는 예수님이 인류에게 가져올 축제 음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성막뜰의 육적 잔치인 화목제의 희생을 먹은 것처럼 예수님은 히브리 화목제의 영적 원형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으로 드리셨습니다. 유대인은 실제 “생명의 떡”보다 떡과 물고기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주시는데 그들은 땅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징과 성취에 대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정말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0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는 떡과 물고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63~6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3절). 이것은 “내가 준 메시지에 영적 교훈(적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육적인 것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육적인 만나는 유익이 없습니다. 떡과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육적 존재만으로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이고 영적 메시지이며 그것이 온갖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유대인들이 떠날 때 예수님이 사도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7~68절). 이것이 바로 화목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며, 그 평화는 예수님이 희생하신 살과 피를 통해 주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구속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로운 교제를 맺은 구원받은 영혼을 생각할 때 이것이 왜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이며, 레위기에 나오는 그림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표징이 성취되었습니다.

8. 속죄제

이번에는 속죄제와 이 희생의 각 구분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 희생에 따르는 다른 의식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희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된 교훈도 있습니다. 속죄제 희생의 특별한 특성상 중요한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모든 희생제와는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에 속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지극히 거룩한” 희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속죄제, 속건제, 속죄일 희생이 있습니다. 이 희생들이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지만, “지극히 거룩한” 희생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속죄제의 속성과 속죄제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성경 구절은 레위기 4:1-5:13, 6:24-30과 민수기 1:21-22입니다.

속죄제의 역사적 배경 속죄제 – 히브리어로 “하타”

속죄제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이 희생은 일반적으로 모세의 십계명에서 처음 다섯 계명 중 하나를 어겼을 때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의 속성과 권리를 침해한다는 뜻입니다.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드리는 희생이므로 향기로운 냄새에 속하는 희생은 아닙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존귀의 법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냄새에 속하는 희생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 희생에도 “향기로운 냄새”로 부르는 독특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희생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교제가 저질러진 죄로 손상되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더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스라엘 나라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려면 그 전에 이 대속의 희생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죄인 줄 알고 범했던 법을 모르고 범했던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았든 언약 관계의 회복에 앞서 대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 문제는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항상 사람의 선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를 저질렀든 알면서도 저질렀든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율법을 몰랐으니 그 죄의 형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알려고 하지 않고서 자신이 몰랐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무지도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불가지론자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자신이 알지 않으려고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그가 선택한 것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악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죄짓는 경향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무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짓기를 선택한 것처럼 그는 무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죄는 그저 사람의 속성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속성 까지 파괴합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죄를 짓도록 창조 때부터 선천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그런 속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법을 자신이 범하기 전까지는 무죄합니다. 물론 죄는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하나니” (고린도전서 15:33).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18). 이 말씀은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주의할 것을 경고해줍니다. 성경은 죄의 유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1-32절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0절에서 이를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구약과 신약 모두 이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사람이 저지르는 오만한 죄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적 거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자기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은 없었습니다. 신명기 13:6-9, 17:2-3과 레위기 24:14에 그렇게 오만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게 했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록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일지라도 레위기 24장에서는 불쌍히 여기기 말고 공辜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죄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셨

습니다. 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헬라어 원문은 모세의 법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나 경솔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몰라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런 죄는 속죄제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알고서도 오만하게 지은 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법이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모세의 율법 이전 족장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창세기에는 대속을 위한 희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읍기에서만 읍의 아들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드린 희생이 나옵니다(읍기 1:5). 그러나 그 경우에도 드린 희생은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 제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읍이 그랬던 것처럼 각 족장이 그 족속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렸지만, 성막이나 제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모세 이전 시대에 속죄제나 속건제가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그런 희생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동물 희생제가 죄를 덮지 않았음

동물의 피가 대속할 수 없음

분명한 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도 동물 희생이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과 10절에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속죄제와 속건제의 목적이 속죄였지만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실제로 용서됨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후 예배자가 실제로 용서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0, 26, 31, 35절과 5장 10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분명한 것은 동물 피로 용서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피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외견상 그럴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인은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속의 희생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예배자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피에 구속적인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피 때문이 아니라 장차 있을 갈보리의 희생을 보시고 히브리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27절은 이를 확증해 줍니다. 하느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헬라어 원문은 “만족”)으로 말미암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나오는 “전에 지은 죄”는 율법 아래 지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죄인의 구분 / 가중된 대속

죄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의 신앙적, 정치적 위치가 죄의 경중을 결정합니다. 죄의 결과만 아니라 그에 대한 속죄로 어떤 동물을 드려야 하며 그 희생 동물의 몸의 배치도 그 죄의 정도라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의 정도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영향이 온 나라에 미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은 가장 책임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표했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위는 지극히 중요했으며 그의 죄는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죄는 그런 점에서 한 예입니다. 대제사장이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며,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인 면에서 온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는 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4:3).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두 번째로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4:13). 대제사장은 온 회중을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온 회중이 대제사장을 대적함으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온 회중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일반 지도자입니다 (레위기 4:22). 여기에는 족장,

사사, 이스라엘 왕자, 후에는 왕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온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들의 죄는 더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인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위에 따라 그가 저지르는 죄의 경중이 달랐으며, 그 대속을 위한 의무도 가중되었습니다.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 네 구분의 책임은 대제사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 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에게 묻고 있음을 분명한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며 백성의 죄를 탐식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을 칼로 다 죽이라고 처벌자를 보내셨습니다. 죄를 보고 탐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죄에 관여했을 것입니다. 처벌자들은 궁зал을 베풀지 말고 죽이는데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9:6). 하나님의 보실 때 가장 중대한 죄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경고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1).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16). 하나님의 일군은 더 의롭고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4 참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요구된 동물 희생

네 가지 각기 다른 책임의 정도는 어떤 동물을 희생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지정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희생 제물은 황소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싸고 높이 평가한 동물 희생이었습니다. 결론은 자명했습니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죄일수록 더 엄격한 대속이 요구되었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 바치는 희생 제물로 요구된 것은 황소였습니다. 일반 지도자를 위한 희생 제물은 숯염소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을 위한 희생 제물은 암 염소였습니다.

일반인이 암 염소가 없으면 암 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례위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

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이에 덧붙인 말씀이 11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 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것은 몹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임이 분명합니다. 십 분의 일에 바는 고운 가루 약 3쿼트(2.8ℓ)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살펴보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에바 십 분의 일은 피 흘리는 제물이 아니지만, 속죄제의 피 흘림을 대신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제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피 흘리는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도 희생 동물을 가져올 돈이 없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도 가난 때문에 구속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물이 고운 가루 십 분의 일 에바(약 2.8ℓ)였으므로 레위기 5장을 보면 그것을 일반적인 첫 열매 희생과는 구분하라는 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속죄제라”라는 구절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피 뿌림 – 책임의 정도

피 뿌림은 죄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는 성소의 분향단 뿐 위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 의식의 독특성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9:24). 피는 성소에 뿌려지고 그 희생 동물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것을 성소로 가져가지 않으면 희생 동물의 몸에 대한 처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향단의 뿐에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단이었습니다.

그 뿐들은 향단에서 가장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속죄제에서 대속이 핵심이라는 강한 인상을 유대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곳은 대속이 최우선이며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피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히브리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의 뒤편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계셨습니다. 그들은 지성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케나”로 불렀습니다.

향단의 뿐에 피를 뿌리는 것은 대제사장과 온 회중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대속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죄가 온 나라에 미칠 때나 온 나라가 죄를 지을 때 그를 위한 대속은 신학적인 면이나 그들의 생각에서 훨씬 더 중요했음이 분명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는 피를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 번제단의 뿔도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향단과 번제단의 뿔은 이 희생의 네 귀퉁이에 돌아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단의 뿔 위에 피를 뿌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피 뿌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뿌렸습니다.

희생 동물의 몸

희생 동물 몸의 분배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희생 동물의 배치가 정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연관된 표징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해서는 황소 두 마리의 피를 성소로 가져가므로 이것은 그 희생의 몸이 진영 밖에서 불살라진다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 표징과 상징의 성취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12).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의 거절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황소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 몸이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 희생의 불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황소들을 삼킨 불은 “세라프”였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일반 지도자를 위한 희생 동물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피도 성소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속죄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생 동물의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놓지도 않았습니다. 이 속죄제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동물의 몸을 취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에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 대속하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이 희생 동물의 몸을 취했습니다.

제사장은 희생 동물의 가슴을 흔들거나 뒷다리를 들어 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동물 몸 전체가 제사장의 몫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29절을 보면 레위 족속의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희생 잔치의 결과물을 취할 특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은 아니었지만 가장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동물의 몸은 제사장의 몫이고 그것을 성소에서 먹게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거룩한 곳에서 먹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성막 곧 회막의 뜰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6:26).

이 희생을 성막 뜰에서 먹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화목제의 축제와 같습니다. 단지 그 잔치의 참여자가 다릅니다. 여기서 이 희생 축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도자와 일반인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잔치 축제를 베푸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온 인류를 위해 필요한 구속의 과정을 완성하셨을 때 하늘에서 열린 축제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온 하늘에 축제의 잔치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5장 9,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예수님이 대속의 희생을 드린 후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로 하늘로 귀환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림자 표징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속죄제 의식

다시 한번 이 희생의 단계들을 살펴봅시다. 드림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단계는 번제와 화목제의 그것과는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회중이나 개인이 대속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손을 얹는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저지른 죄를 옮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른 희생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4장 4절은 이 희생을 회막 문에서 드리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온 회중이 참여하는 경우 각 족속의 장로들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는 손 얹음이 있었습니다. 온 회중의 경우에는 각 족속의 장로들이 자기 족속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은 온 나라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난 구체적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후 다른 희생제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희생 동물을 죽였습니다. 피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네 가지 책임의 정도에 따라 향단이나 번제단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희생에서 하나님의 뜻인 희생 동물의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이 희생이 “가장 거룩한” 희생에 속하고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지만, 어땠든 기름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죄인들은 분명히 회개했고 죄가 공개적으로 고백 되었습니다. 대속의 희생을 드려졌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에서 기름이 오로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교제가 이렇게 회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는 희생 제물의 배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해 희생된 황소는 진영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지도자와 일반인의 희생 제물은 성막 뜰에서 베풀어지는 잔치로 제사장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의 모든 의식의 단계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와 속죄제 그는 속죄제의 실체임

히브리의 모든 희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구약 희생의 예표를 성취하신 분임을 확증하는 사실이 신약에 여러 번 중요한 구절로 나옵니다.

이 개념이 히브리서에 나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온전한 속죄제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지 사도들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섭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섭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많은”이란 단어는 대중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음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 사도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혀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계속해서 그는 율법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보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 죄의 형벌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옮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 안에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나님 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속죄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속죄제에서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이를 말해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예수님의 세상의 죄를 덮기 위한 흄 없는 어린양이라고 확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유대인 시대나 그리스도 시대만이 아니라 역사상 모든 인류의 죄를 덮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의 이름이 왜 예수인지를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 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자기 백성”은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요한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덩어리로 보고 “세상 죄”라고 부른듯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속의 희생이 예수라고 확증했습니다.

9. 속건제

이번 과에서는 속건제를 다룹니다. 속건제는 레위기 5:14-19; 6:1-7; 7:1-7과 민수기 5:5-8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속건제를 설명하고 그 독특한 의식과 이 희생에서 엄격하게 요구하는 공의와 그에 따른 책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 갚는 그와 같은 공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 속건제의 성취인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속건제는 십계명 후반에 나오는 다섯 계명 곧 사회적 속성에 대한 명령 가운데 하나를 어겼을 때 드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속죄제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십계명의 처음 다섯 계명을 어겼을 때 요구되었습니다. 속건제는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 곧 하나님의 통치를 어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건제의 배경과 명칭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삼”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잘못된 행동으로 야기된 도덕적 책임이나 부채 때문에 생긴 죄책감이나 빚을 의미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를 본 사람의 처지에서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없었습니다.

이 희생은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이 하나님과 교제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도 파괴한다고 전제합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구절은 이웃에게 저지르는 모든 잘못이 곧 하나님에 대한 잘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과 교제를 잃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성막에서 일어나는 어떤 희생이나 예배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배 참여자가 아니며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배와 하나님과 교제에 다시 들어가기에 앞서 그 사람 편에서 교제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희생

이것도 “지극히 거룩한 희생”에 속하는 희생입니다. 이 희생에는 번제나 화목제의 특징인 향기로운 냄새는 없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지극히 거룩한 희생에 속합니다. 히브리인 간의 올바른 관계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에 앞서 선

행되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희생 제사

속건제는 개인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공동으로 드리는 속건제는 없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동시에 다른 모든 히브리인의 물건을 훔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항상 개인적이었습니다.

속건제는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도자, 제사장, 왕, 혹은 일반인이든지 공의는 똑같이 요구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숫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항상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라고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속건제에는 반드시 양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차이를 두지 않은 데는 도둑질이나 사회적 악행을 가난 때문에 저질렀다고 평게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은 항상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의 침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온 나라가 동시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거국적인 속죄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속죄일에 온 나라를 대신해 개인들도 참여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회중이나 거국적으로 드린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존중

율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 가운데 한 분이므로 이 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리도 존중해야 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를 때 드리는 속건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첫 열매 희생과 모든 것의 십 분의 일도 존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먹고 하나님께 드린 관제를 마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레위기 22:14-15).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의 죄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이성의 금덩이를 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예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예배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하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

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쳐야 할 수확과 동물의 첫 열매 곧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흄 있고 상처 나거나 곧 죽게 될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라기 1:8).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은 그의 속성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속건은 비례적임

레위기 6:1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항상 속건제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이웃의 권리를 침해한 몇 가지 예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웃을 속임

그 첫 번째 예는 이웃이 맡긴 무언가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웃이 재산이나 상대방에게 빌려준 물건을 잘 보살피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웃의 재산을 침해했습니다. 가축을 돌보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을 팔거나 잡아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재산을 침해한 것입니다.

속임수

또 다른 잘못은 다른 사람의 재산인 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렸거나 상대방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물건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침해한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헐값으로 넘기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도둑맞은 재산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또 다른 예는 재산을 훔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값을 치르지 않거나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경계표란 재산의 경계를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계표를 옮기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하는 것이며 도둑질입니다.

갚지 않은 빚도 이웃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웃에게 빚을 졌는데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그 날짜를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웃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때에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는 이웃의

돈을 그의 동의 없이 압류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나 이웃에 대한 억압

이웃을 속이거나 온종일 일한 사람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이웃을 억압하는 죄입니다. 일한 사람이 때로는 그 돈으로 그날 저녁 가족이 먹을 음식을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어기는 것도 악행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부터 보면 이웃의 것을 압류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것을 가져가면 그를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이를테면 그의 물건을 제값보다 싼 값으로 넘기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잃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사람이 잃은 물건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가 사용하거나, 거짓말로 맹세하면 이웃에 대한 학대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 물건의 주인은 그의 소유물을 빼앗긴 것입니다. 물건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 해도 자기 것이 아님은 상식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쓸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1-2절은 잃은 재산을 그렇게 처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이웃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잘 불들어 두었다가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으러 올 때까지 그 가축을 자기 것처럼 잘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반환과 보상 재산의 보상이 먼저임

속건제의 핵심은 엄격한 공의입니다. 반환과 변상은 속건제의 대속 과정에 선행되는 의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반환은 재산을 먼저 회복시켜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민수기 5장 7절에서 반드시 잃어버린 부분을 온전히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죽었는데 그의 재산을 훔친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하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갚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8절은 그의 잘못을 되돌리기 전 하나님께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환 후 변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상은 추가해야 함

보상은 훔친 가축이나 재산의 가치보다 오 분의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십일조의 두 배인 20%인데, 이것을 원래의 가치에 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축이나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준 후 그 가치의 20%를 더해서 주거나 돈으로 주어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5절은 반환하고 거기에 20%를 더해주는 것은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십일조의 두 배는 성전의 세겔로 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변상을 히브리인이 동물 세금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세겔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20%는 피해 본 사람에 대한 변상으로 여겼습니다. 원래 주인이 자기 소유물을 빼앗겨 다른 사람이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서 아무런 이익도 남길 수 없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후 피해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 본 사람이 요구하는 공의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무지가 예외일 수 없음

알고도 죄를 범했던 모르고 범했던 의식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웃의 재산을 훔쳐 자기 멋대로 쓰거나 팔아버리고 이웃이 혹시 그것을 보았냐고 물으면 “아니오. 보지 못했어요”라고 거짓 맹세한 사람은 믿기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의적인 죄입니다. 이웃을 속이는 것은 잘못이며, 반환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환과 변상이 대속하지 않음

반환과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죄지은 사람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이지만, 아직 하나님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오로지 대속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목제를 바쳐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6절과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속건제의 기본

속건제는 일대일 공의의 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법처럼 엄격한 공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율법의 엄격한 공의

출애굽기 21장 23-25절에서 만약 심각한 상해가 있으면 율법이 히브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17-22절은 여기에 다음 사항을 덧붙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예를 들어 뼈가 부러졌다며) 상대방이 한 그대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금줄이 없을지라도

신명기 25장 1-3절은 돈이나 재산으로 이웃에게 보상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정한듯합니다. 이를테면 이웃을 중상하거나 모욕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재판관이나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으러 갑니다. 그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은 육체적인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성격상 돈의 문제가 아니므로 돈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채찍을 맞는 체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찍을 맞을 때 정해진 기준은 40대 이하입니다. 이것은 재판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40대를 넘기는 채찍질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40대를 채우지 않고 39대를 때리고 그쳤습니다. 적게 처벌할 수는 있지만, 더 많이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대 채찍을 넘기지 않은 이유는 자기 눈으로 그들의 형제가 모욕받는 것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체벌의 목적은 상대방을 초라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40대를 넘겨 때린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임이 틀림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함

신명기 19장 15-19절은 모든 사람이 이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제사장의 소송

신명기 17장 8-13절은 때로 조정하기가 너무 힘든 형제들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이나 공격적인 비방이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찾아가면 심문을 받은 후 옳은 사람은 응호하고 악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쌍방이 따라야 할 판결이 내려집니다. 당사자는 판결에 따라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의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경멸한 사람이 어리석고 건방지게 행동했습니다.

다. 그 사람은 판결을 내린 사람을 존중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는 별도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판결을 거부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판결에 거역하는 오만한 죄를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결은 의롭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합니다.

속건제 의식

이번에는 속건제 의식의 각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첫 단계에 드림이 없는 유일한 희생입니다. 대속을 위해 동물 희생을 드리기 전 공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이웃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첫 단계는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속을 받아들이기 전에 공의가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민수기 5장 7절 말씀대로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 가치에 20%를 추가해 보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속죄제에서 두 번째 단계는 저지른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공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듯합니다. 이 희생에서는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한 행동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핵심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웃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공개적이고 공적인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바르게 회복시키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희생제물을 죽이는데, 이것은 속죄제와 피 흘리는 다른 모든 희생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단계 이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 기둥에 뿌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속죄제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 번제단의 뿔이나 성소에 있는 향단의 뿔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에서는 피를 번제단 하단의 기둥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대속이 이차적임을 나타내주었습니다. 반환과 보상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적인 고백은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한다는 그의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피 뿌림은 부수적인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기름을 희생제물에서 제거하여 속죄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립니다. 속죄제의 기름처럼 이 부분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대속이 이루어졌고, 용서가 주어졌으며,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하나님이 기름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회개할 때 그 냄새가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교제를 허락하셨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대속이 받아들여져야만 기름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이 희생의 마지막 단계는 희생 동물 몸의 처리입니다. 속죄제에서처럼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7장 7절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율법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 두 희생에 대한 율법은 하나입니다. 제단에서 희생을 주관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희생제물의 몸을 취합니다. 이것은 성막 뜰에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7:6).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을 위한 축제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한때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한 사람의 회복과정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교훈

속건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속죄제에서는 올바른 희생을 드림으로 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속건제에서는 범죄한 사람의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3:8). 속죄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속건제에서도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단순히 믿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건제는 회개

도 요구합니다.

우리가 속건제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희생을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사람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이웃의 돈을 여전히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그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지위나 직책이나 경제적 능력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잘못을 약화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속죄제에서 만족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나 재판관은 하나님의 판단을 전해주고 사람은 그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이 마태복음 5장 23-2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대속의 희생을 받으시기 전에 공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25-26절에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듯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공의에서 도덕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입은 손해대로 먼저 갚아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재판관이나 제사장에게 그 소송이 넘어가면 그들의 판결은 훨씬 엄격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무슨 판결을 하든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그 빚을 완전히 갚기까지 그 사람이나 그 가족 전체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건제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희생을 “만족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대

속의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만족(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로마서 3:21, 히브리서 2:17, 요한일서 2:2, 4:10. 예수님이 “만족” 시키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 죄보다 더 많은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 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우리 빛을 갚아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희생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10. 나답과 아비후

이번 과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죽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 1-20절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3장 4-5절에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의 역사적 배경 히브리 역사상 평범한 날이 아니었음

당시 행사의 상황이 그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날은 히브리 역사상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40장 34-38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기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모든 기물은 준비되었고, 성막을 세웠고, 모세가 점검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성막의 자세한 모형에 대한 지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에 따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점검하고 모형에 맞는지 모세가 확인을 끝내자 이제 성막은 사용을 개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홀연히 성막 위로 구름이 내려왔습니다(출애굽기 40:34).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은 바로 그날의 행사와 관련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개시하는 날이었습니다. 대속과 예배의 희생을 이루어지는 성막의 사용을 모세가 개시하는 날이었습니다.

히브리 예배를 위한 개시일

아론과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정해졌고 그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희생 제사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모든 희생을 바칠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축하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성막과 제사장과 희생의 개시일에 모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특별히 준비된 예복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은 땅에 대하여 하늘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복은 그들의 거룩한 역할을 반영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성결케 하는 의식을 마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 임명하는 데는 일정한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식의 첫 부분이 레위기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름을 그들의 오른쪽 귀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발랐습니다. 이처럼 기름을 바르는 목적은 그들의 머리, 귀, 손, 발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고, 귀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손은 하나님을 섬기고, 발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속죄제 희생을 죽임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속죄제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취해 기름을 바른 부분에 똑같이 그렇게 발랐습니다. 피를 그들의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 목적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온몸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 희생을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고 확인해 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나와 희생 제사와 축제가 시작됨

이미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성막 뜰밖에 모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희생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번제를 취해 성막 뜰에 있는 단 위에 놓았습니다. 화목제 희생,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희생 동물에서 기름을 제거해 규정대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에 상징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의 임재가 외형적으로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징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불이 나와 희생제물과 번제단 위의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이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론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바로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 준 모형대로 성막이 신실하게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단에 불을 붙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그들이 드린 희생을 받으셨다는 증거였습니

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엎드렸는데, 이는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고 찬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드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갖고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을 더한 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와 단 위의 기름을 삼키고 그 두 아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불이 그들의 예복을 태우지는 않음

그러나 그 불이 그들의 예복을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의 친척이 성막으로 들어와 진영 밖으로 메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레위기 10:5).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가볍지 않음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우리에게는 사소한 실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고 무겁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하나님의 좀 더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죄 그날은 “개시일”이었음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표면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많았으므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성막과 제사장과 희생 제도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히브리 예배에서 이 세 가지와 속죄의 규정을 어기는 것은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할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날의 규정을 사람이 자의대로 변경하는 것을 그대로 간과하신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하시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온 회중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지성소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천사들도 두려워하며 걷는 곳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을 보면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친 선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산에 경계를 쳐서 백성이 산에 올라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애굽기 19:21-22).

하나님이 그 산에 나타나신 것은 사람의 호기심이나 구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13절은 동물이라도 산에 접근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로 물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 올라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 말하라.” 하나님은 어느 죄인도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렇게 충동적으로 나아가려 했는지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받지 않으시는 제사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이상한 불”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의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0:1). 그 장소도 그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이상한 불”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상한”은 히브리어로 ”자”인데,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계속 쓰였습니다.

불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취해 분향을 위해 향로에 피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향단은 기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붙인 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그 불이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틀림없이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은 속죄일에 아론이 하나님께 향을 피우기 위해 번제단의 불에서 불을 가져오도록 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땅의 입을 벌려 그들을 산 채로 삼키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론을 적대했기 때문입니다. 성막 주변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모세에게 죽음을 피하려면 고라의 무리에서 떠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시지 않도록 아론에게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은 향단과 불을 존중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보여줍니다. “너

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여기서 “다른 향은” 히브리어로 “쟈” 곧 “이상한 향”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것(향)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봇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떤 이상한 향이나 이상한 제사장이나 이상한 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형 밖의 것은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여기서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을 불이셨습니다. 그것은 분향을 위해 사용된 숯에 피운 불인데 하나님은 그 불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0, 11, 13절에서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한 불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 – 지성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 향을 이상한 곳에서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서 “여호와 앞”은 그날의 역사적 문맥에서 이미 사용된 문구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 제단 위의 희생을 삼킨 불의 근원을 설명할 때도 똑같은 문구가 쓰였습니다. “여호와 앞”은 지성소 안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상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안으로 틀림없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절은 그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 “여호와 앞에서”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은 모세가 “여호와 앞”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곳 16장에 나오는 경고는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론의 두 아들은 바로 이 경고를 어겼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상한 불, 이상한 장소, 이상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에는 이처럼 모든 잘못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성막 기구의 배치에 관한 규례에 따르면 분향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성소 안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은 속죄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막 외부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

었고, 또 다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그 휘장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섬김을 위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통과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와 히브리서에서 구분하는 그 휘장은 죄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가 제거되기까지는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짓값을 치르셨을 때 히브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을 그리스도께서 둘로 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가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죄 문제가 나답과 아비후 시대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성막에 휘장을 두신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각 휘장에는 천으로 짠 두 그룹(천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룹은 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 에덴동산에 다시 들어가 생명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동산 동쪽에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히브리어 성경은 그 두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향을 드렸다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 있을 의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향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법을 고안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그들의 성급하고 주제넘은 행동에 죽음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종교적인 사항, 특히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명령 없이 행하는 것은 명령을 거슬러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향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명령하셨으리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0장 1절에 그에 대한 금지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그들이 분향한 것은 이에 대한 특별한 명령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 불이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분향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면 분향해야 할 사람은 그 두 제사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온갖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내

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는 주제넘은 죄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이 이를 말해줍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예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법, 법적 결정에 관련된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용어는 구약의 제도에서 예배의 법과 규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10장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의 예법을 무시하는 종들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감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자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나답과 아비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론은 아무 때나 지성소에 돌진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때 외에 그가 들어가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려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을 히브리어로 “시케나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영광스러운 곳이란 뜻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경고는 분명해졌습니다. 아론은 “아무 때나” 그가 선택한 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2절).

이런 제한은 후에 히브리서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되는 강력한 구속의 표징을 만들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행하는 기능은 (레위기 16장에 언급됨)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과정을 훌로 성취한 사실을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성취를 돋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조력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훌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죄일이 보여주는 표징을 성취하실 때 그를 돋는 조력자 없이 하셨습니다. 속죄일의 회생에서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그날 행한 의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함

나답과 아비후가 저질렀을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술 취한듯합니다. 레위기 10장 8-9절에서 그들이 불에 탄 후 아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여기서 그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똑같은 죄를 아론이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죄와 관련이 없다면 성막 개시일에 왜 음주를 금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관제”를 마셨을 가능성

우리가 살펴볼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속된 것”은 세속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그들의 “나식”(첫 열매의 관제)를 가져올 때 그것은 제사장이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나식”은 제단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봇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의 어떤 것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속건제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아론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반드시 구분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날 관제를 마신 듯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포도주와 그들이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옳지 않은 사람들이고, 옳지 않은 일을 행했고, 옳지 않은 곳에서, 옳지 않은 날에 옳지 않은 목적을 위해 옳지 않은 음주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의로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표징을 침해하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날 개시일에 있었던 모든 일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미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희생에 나올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대한 어떤 변경도 실체에 대한 왜곡입니다. 장차 세워질 구조물의 변경 없이 설계도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 모든 의식을 보여주셨고, 그 모든 표징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관한 설계도를 존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기를 설명하심 하나님의 뜻은 도전받을 수 없음

왜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두 제사장을 철저하게 막으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말씀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섬기는 사람은 나를 최대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형을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함

하나님이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3절).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그의 거룩한 신성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과 이 직전의 말씀은 히브리어에서 명령형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두 제사장을 그대로 두셨다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장차 그 백성의 예배에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론이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었음

아론이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6절).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친 재난을 슬퍼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것을 금한 이유는 아론이 그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아무 이견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동의해야 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아들을 벌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그의 두건을 벗어 던질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반감도 아론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행한 다른 의식 속죄제를 먹지 않고 불사름

그날 또 다른 의식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서 모세가 속죄제의 동물 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생제물의 피를 대속을 위해 성소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몸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제로 성막 뜰에서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제물의 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희생 제도의 의식을 위반하여 그 동물의 몸을 진영 밖으로 가져가 불살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시에 대한 위반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해명을 요구함

모세는 노여웠습니다. 어쩌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론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7-18절).

아론의 해명

아론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19절). 아론은 아들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19절에서 아론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는 하나님이 아론의 집에 진노하셨으므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이 성막에서 아론을 위해 축제를 베푸실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론의 해명은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론의 논리

성막 끝에서 희생의 몸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집인 성막에서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제사장 간의 축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9-20절). 아론의 행동에 대한 이와 같은 해명은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당시에 왜 그렇게 극도로 주의를 기울였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날 아론이 축제에 참여하리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리라고 아론은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법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엄하고 엄숙한 방법으로 관여하신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11. 속죄일 (1)

이번에는 속죄일의 의식과 희생을 소개합니다. 속죄일은 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연구하는 희생입니다. 속죄일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다음 과에서 다루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34절에서 속죄일에 관한 규례와 의식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7-11절에도 속죄일에 관한 언급이 있고 3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본과에서는 속죄일 연구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아론의 의무에 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에 관한 예언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속죄일의 역사적 배경

명칭: 속죄일

히브리어로 속죄일을 “옴 키부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덮는 날”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카파”는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역청(타르, tar)으로 안팎에 “칠하라(덮으라)”하고 명령하셨을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

속죄일은 히브리인의 의식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속죄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거국적인 행사

이것은 거국적인 행사였지만, 히브리인은 개인적으로도 그날을 깊은 영성 가운데 묵상하는 태도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속죄일의 모든 의식에 자신도 참여한다고 여겨야 하며, 그날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곧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날 행해지는 모든 의식이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백성 간의 대속과 화해를 상징적인 면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희생의 모든 전제조건과 대제사장의 기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와 언약의 일치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일의 대상과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일의 대상, 목적 및 필요성 죄를 위한 대속을 바침

속죄일은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속죄제는 사람이 정의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는 죄를 위한 대속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무지 때문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긴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점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저질렀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 13, 22, 27절과 5장 15절에서 부지중에 짓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짓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이 지은 많은 죄를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들을 무시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죄들도 희생의 피로 덮어져야 했습니다.

희생 제도의 부족을 드러냄

희생 제도가 실제로는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려고 속죄일이 필요했습니다. 속죄일이 보여주는 그림자 속에 그 사실이 잘 들어 있습니다. 속죄일 의식 가운데는 장차 완전하게 죄를 실제로 대속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희생 제도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또 다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완성입니다.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희생을 전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가 흘리신 희생의 피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적용한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미래 세대가 메시아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가 성취할 구원의 실체를 그림자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그들이 드린 “그림자 희생”이 단지 “그림자 대속”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희생”이 “실제로 죄 사함”을 가져다준 후에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은 보편적이라야 한다

속죄일에 누구나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속이었습니다. 이는 제사장과 온 나라의 죄뿐만 아니라 성막과 관계된 모든 것을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집과 온 회중이 속죄일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지성소도 백성의 죄로 부정하거나 속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성막 끝의 번제단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죄가 상징적으로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죄로 물든 나라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죄로 물든 이스라엘인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성결케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갖는 교제가 그들의 죄 때문에 곤혹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죄하심과 거룩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불충분했음을 보여줌

하나님은 각기 다른 죄를 위한 희생 제도가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필요는 더욱더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히브리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백성이 매일 짓는 죄를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 희생이 죄 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항상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에서도 이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알고 있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를 잘못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속죄일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희생을 드릴 계획을 세워도 머잖아 자신의 의도를 잊곤 합니다. 그 결과로 죄는 덮어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다음 주나 다음 달에는 희생을 드려야지”라고 다짐하면서도 이내 잊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나 부주의 혹은 망각 때문에 희생 제사를 오래지 않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저지르는 이와 같은 죄를 덮기 위해 속죄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한 희생 동물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몇 달 안에 염소나 양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입증되고 수호됨

이 속죄일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불의한 백성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수호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거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신다는 외적 상징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사는 그들과 한패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도 틀림없이 그런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1-2, 마태복음 11:19). 잠재적으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질 수 있었고 예배자들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죄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속죄일에 아론은 제사장의 수송아지 피를 갖고 뿐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의식도 행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뿐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레위기 16:15-16).

그는 백성을 위해 염소의 피를 갖고 수송아지 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갖고 성막 끝에 있는 번제단 위에 뿐립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뿐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18-19절). 이와 같은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정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일에 강조되었습니다.

모든 제도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속죄일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도록 강조했지만,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행하는 의식 가운데서 이것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모든 희생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으며, 속죄일에 행하는 대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일도 “실체”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속죄일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인상 깊게 심어줍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슬퍼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죄를 돌아보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런 회개는 그들의 금식과 죄에 대한 애도를 통해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영적인 간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욥 키부르”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은 용서의 확신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이스라엘 앞에서 공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위기 16:2). 속죄소를 “자비의 자리”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신다는 것을 그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공표함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속죄일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 하나님이 노하셨으므로 율법을 어겨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을 위한 희생의 대속을 받아주셨습니다.

한 해 축적된 죄를 십자가로 보냄

우리가 희생 제도를 연구하면서 속죄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한 해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로 보내 쌓아놓으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 과에서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든 그려지 못했든 하나님은 표징을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희생이 이루어지면 장차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아름다운 그림자 모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죄가 “앞으로 굴러갔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임

이스라엘의 죄가 그날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가 용서는 되었지만, 덮어진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의 죄가 한해 “앞으로 굴러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일의 희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가 다음 속죄일까지 앞으로 굴러갔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의 희생 동물의 피가 그들의 죄를 또 한해 앞으로 굴러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가 매번 한해씩 그리스도의 갈보리 희생 때까지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위 개념에 대한 반론

그러나 이를 깊이 연구해 보면 그 개념의 오류가 드러납니다. 그런 개념을 지지하는 성경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일시적이라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일정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율법은 장차 오는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은 동물의 피가 아주 조금이나 극히 일시적이라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 희생들이 외적인 육체만 정결하게 할 뿐이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희생은 사람의 양심이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 도덕적 죄를 실제로 없애지 못했습니다. 성막의 의식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적인 더러움만 제거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은 그 희생들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속죄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릴 희생을 통해 그들의 죄를 덮어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책임을 자신 것입니다. 다가오는 좋은 일은 분명히 “실체”인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이미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림자 희생은 그림자 용서만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더러움만 제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들은 또 다른 한 해의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대속을 위한 피의 필요성

희생 제사에서 히브리인은 단지 상징적으로만 그들의 죄를 희생 동물에게 옮겼습니다. 다음 과에서 본 과정을 마칠 때면 이 개념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거의 모든 물건”은 피가 율법 아래서 정결하게 주요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19-2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되고, 어떤 것은 불로, 어떤 것은 물로, 어떤 것은 양털과 우슬초로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그 동물 희생의 피 없이는 죄 용서는 피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21절에서 그리스도 희생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동물 희생의 피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희생이 죄 사함을 위해 필요했지만,
죄 사함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음**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히브리

인들은 그들의 대속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릴 때까지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물 피로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피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그 피로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다소의 사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위 모든 구절은 죄 용서를 받는 때가 세례받는 순간임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나 세례받는 물이나 강이나 세례탕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 용서는 세례받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세례받는 바로 그곳에서 죄인이 그리스도의 씻는 피에 들어갑니다. 세례받는 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곳을 통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세례 없이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세례받는 곳은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구속의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옛 율법 아래서의 죄 사함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은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드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를 대속하는 희생 동물의 피가 갈보리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영적 연결에 들어온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그의 죄를 없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표나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내가 후에 갚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의로움과 공의에 빚을 진 것과 같지만, 그 빚을 갈보리에 부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수표나 신용카드의 빚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희생을 드릴 때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갈보리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보리를 담보로 수표를 발행하셨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가 그 빚을 갚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구절에서 예수가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왜 죄를 속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몸의 구속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죄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분명히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짓값이 치러진(덮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보시고 만든 빛을 치르기 위해 (덮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흘린 희생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신 예수의 희생적인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이때(현재)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용서에 나타남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예지(미리 아심)가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죄 용서에 관여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미래의 갈보리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예지가 (아직 범하지 않은) 우리 죄를 갈보리 십자가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 모든 세대의 죄를 모아서 그리스도가 짊어지게 하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예지가 역사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시대에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구약시대를 산 사람들에게도 풍성했다는 점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기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 가운데 항상 갈보리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는 갈보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는 항상 가능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가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어느 시대 사람이든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조건에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 아래서 죄 사함에 대한 인식 히브리인은 그들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기뻐함

속죄일을 연구하면 관심을 끄는 두드러진 사실이 많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죄가 덮어졌음을 알고 용서받은 것을 잘 알고 기뻐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사람이 희생을 바치면 그의 영혼을 위한 대속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4장 20, 31, 35절과 5장 6, 10절은 히브리인이 당시에 거기서 용서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사람을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베푸신 죄 용서를 적법하게 만든 것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말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들어 그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행함으로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인이었습니다.

매년 그 시간이 중요했음

매년 속죄일의 시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날은 일곱째 달의 십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6:29). 이 두 히브리 숫자 10과 7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10은 완전수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성 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홍수 이전에 10명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소돔 성이 구원받으려면 10명의 의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애굽에 10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10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수입니다.

숫자 7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일 때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달의 십 일은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는 때를 상징합니다. 안식일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의 구속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속죄일 준비 백성이 하는 준비

속죄일을 위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엄숙한 모

임으로 그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모였습니다 (레위기 16:29-34). 레위기 23장 26-32절에서 그날을 “세배스 세베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대 안식일”인데, 히브리인에게 가장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죄를 슬퍼하면서 그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히브리인들에게 금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날 영적으로 묵상하며 죄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29-30).

대제사장이 하는 준비

아론은 속죄일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모두 그날 성막 뜰 밖의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날 그들은 죄를 지은 온 나라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론만 홀로 그들을 위해 대속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각자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죄일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12. 속죄일 (2)

소개

이번 과로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희생제도 연구를 마칩니다. 본과에서는 희생 제사에 대한 결론과 레위기 16장 1-34절에 나오는 속죄일의 의식을 다룰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난 과에서 백성이 속죄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론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의 준비에는 여러 가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속죄일 이전 364일 동안은 아론이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 예복을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출애굽기 28:2). 영어 번역본 성경 가운데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색깔이 들어 있는 옷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하늘을 대신하는 그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속죄일에 아론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 그 예복을 벗어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 후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것은 준비인데 사실상 “세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은 그가 다른 역할 속으로 온몸을 담근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속죄일에 섬기는 일반 제사장처럼 단순한 흰색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날 바쳐질 희생 동물을 받을 준비가 끝납니다.

속죄일을 위해 선택된 다섯 마리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장 집안과 아론과 레위 족속을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을 위한 숫양이 있었습니다. 또, 두 마리의 염소가 있었는데, 각각의 염소는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의 것으로 선택됩니다.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로 선택됩니다. 두 염소지만 하나의 희생입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므로 숫염소 두 마리 외에 백성을 위한 번제물로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본과의 끝부분에서 율법에 나오는 모든 희생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특히 속죄일의 희생과 의식에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이 모든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희생을 가리키고 있음을 설명할 것입니다. 속죄일 의식을 포함해 모든 레위 희생에서 예수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11과 복습

속죄일은 일곱째 달 십 일 곧 대안식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이 그날 모든 희생 의식을 행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을 보면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아무도 그 회막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엄숙하게 모여 있어야 했고, 대제사장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날 의식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마리의 동물을 한 주간 우리에 넣어두고 흄이 없는지 날마다 검사를 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의식의 단계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의식은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의식의 첫 단계는 그날을 위한 아론의 준비도 포함됩니다. 대제사장이 평상시 입는 예복을 벗고 몸을 씻은 후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소박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첫 번째 단계는 성막의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단계: 미리 선택된 동물

이 단계는 이미 언급한 대로 미리 선택된 희생 동물을 받아 흄이 없는지 한 주간 동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날 아론이 동물에 아무 흄이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그 동물의 육체적 무결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무결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동물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바쳐질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둘째 단계: 하나님께 동물을 드림

둘째 단계는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희생 동물의 목적은 온 백성의 대속입니다. 각각의 동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마다 독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쳐질 것입니다.

셋째 단계: 아론이 백성의 속죄제를 위해 두 염소를 제비뽑음

그 후 아론은 두 염소 머리 위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두 돌을 양손에 하나씩 취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에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아론은 어떤 돌에 어떤 글이 쓰여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돌들을 두 염소의 머리에 놓고 손을 펴서 여호와께 드릴 염소가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히브리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론이 주홍색 끈을 그 염소의 목에 매다고 합니다. 그것이 죽을 염소이고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것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염소의 뿔에 주홍색 끈을 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염소가 속죄의 염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단계: 제사장의 속죄제 희생 수송아지를 죽임
다섯째 단계: 분향

그 후 아론은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죽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론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대로 향로와 번제단의 숫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숫불을 향로에 넣고 “곱게 간” 향을 두 움큼 집어넣습니다. 향은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곱게 간” 향은 쉽게 불이 붙도록 곱게 가루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론은 그 향을 지성소로 가져가서 거기서 분향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레위기 16:13). 아론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한쪽을 밀거나 밑단을 들어 올려서 지성소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향 두 움큼을 향로에 넣거나 속죄일에 지성소에 둔 향단에 넣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즉시로 연기가 속죄소를 덮게 됩니다. 향이 상징하는 것처럼 아론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기도를 드렸을 듯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 이며” (레위기 16:13) 이것은 아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저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죄 때문에 취하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지성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인 듯합니다.

여섯째 단계: 수송아지 피를 뿌림

이 단계의 의식에서 아론은 또 수송아지의 피를 언약궤 위(속죄소) 언약궤의 동쪽에 일곱 번 뿌립니다. 성막은 동쪽을 향해 있으므로 언약궤의 동쪽은 해가 뜨는 곳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후 아론은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립니다. 여기서 일곱은 완전수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론은 수송아지 피를 갖고 성소로 돌아와 그 피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립니다. 남은 피는 성소에 잠시 내려놓습니다.

일곱째 단계: 여호와 앞에서 염소를 죽임

그 후 아론은 성막으로 나가 목에 주홍색 끈을 맨 희생 염소를 잡습니다. 그것은 여호

와께 바치는 염소입니다. 그리고는 염소의 피를 갖고 지성소로 되돌아갑니다. 수송아지 피를 뿐던 것처럼 이번에는 염소의 피로 똑같이 속죄소 위에 일곱 번, 속죄소 앞에 일곱 번을 뿌리고 성소로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성막의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립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피를 지성소와 성소에 뿐였을까요? 이곳은 부정한 나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서 아론은 지성소와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정한 백성과 만나야 하므로 부정한 오염으로부터 하나님의 성결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레위기 16:18-19).

여덟째 단계: 아사셀 의식

다음은 속죄일 의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에서 아론은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야 합니다. 그가 수송아지와 여호와를 위한 첫 번째 염소를 드릴 때는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손을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얹는 것이 여기서 눈에 띕니다. 한 손은 제사장을 대신해 얹었고 다른 한 손은 백성을 대신해 얹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그가 손을 염소의 머리에 얹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 행위는 죄를 옮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아론이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론이 율법 계명을 열거한 후 이스라엘이 이 모든 법을 어겼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과 백성이 그 법을 어겼음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홉째 단계: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론은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 염소를 때로는 “속죄의 염소”

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의 염소(속죄양), 오늘날에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동물이었습니다.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놓아둡니다 (22절). 후에 히브리인이 뿔에 주홍빛 끈을 맨 염소를 발견하면 절벽 아래로 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축적된 죄를 짊어진 그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다시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듯 합니다.

아론이 그 염소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자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염소를 진영 밖으로 보냈습니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1절). 염소를 광야로 보낸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밝혔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의 의식을 위해 미리 정한 사람인데, 그 염소의 머리에 상징적으로 죄를 옮겼으므로 염소를 광야로 데려간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기 전까지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정결해져 진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열째 단계: 아론이 예복을 다시 갈아입음

분명한 것은 그날 아론이 홀로 이 모든 의식을 진행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아론이 회막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날 의식을 위해 입었던 일반 제사장의 흰색 세마포 옷을 벗고, 그것을 성소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후에 아론이 몸을 물에 담가 다시 한번 씻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아론이 그의 영화스러운 예복을 다시 입는데, 이것은 평상시 그의 섬김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것은 여러 색깔로 만든 예복인데, 출애굽기 28장 2절에 의하면 영광과 아름다움, 거룩함과 명예를 위한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혹은 땅에 대한 하늘의 대리를 나타냅니다.

열한 번째 단계: 번제 희생

이제 아론은 성소에서 나와 그의 원래 예복을 다시 입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는 제사장을 위한 양과 온 회중을 위한 양입니다. 이 번제 의식은 아마도 레위기 6장 8-13절에 나온 대로 계속되는 번제의 형태를 띠었을 것입니다. 피는 정해진 예법대로 뿐였습니다. 이 번제는 제사장과 온 나라가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의 예배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온 나라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재헌신한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열두 번째 단계: 수송아지 기름을 번제 양과 함께 불사름

아론은 수송아지와 염소의 기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번제로 드리는 양의 기름은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제는 그 전체를 모두 번제단에서 불사르기 때문입니다. 제거한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향기로 드립니다. 아론이 번제와 함께 그 기름을 단위에 올려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열세 번째 단계: 속죄제 동물 몸의 처리

그 후 아론은 속죄를 위해 바친 수송아지와 염소의 몸을 처리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세라프” 불로 사르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표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밖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속죄제의 의미와 교훈

아사셀 – 히브리 합성어로 강력히 제거한다는 뜻

이 모든 복잡한 의식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일 의식을 자세히 관찰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아사셀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합성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앞의 첫 단어는 “강함”이나 “힘”을 뜻합니다.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는 “제거”나 “치우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강력히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장차 모든 죄를 실제로 강력하게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제거되었음을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그 염소를 속죄의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죄를 짊어진 염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그들의 죄가 제거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장면을 보면, 주님이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무죄(양)와 죄악(염소)을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에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두 염소지만 단 하나의 속죄제

여기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이 두 염소지만 한 희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구속 행위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위한 첫 번째 염소는 대속의 근원이자 원인으로 드려졌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두 번째 염소는 용서를 허락하는 대속의 효과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예수

이것은 첫 번째 염소가 실제로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희생된 죽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희생을 위한 한 부분인 두 번째 염소는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희생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아론이 행한 모든 의식은 대제사장인 예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는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는 희생을 드린 후 지금 살아 계셔서 백성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27절은 예수가 백성의 죄를 자신이 희생으로 제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예수는 두 염소와 그날 바쳐진 수송아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론의 준비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아론의 준비와 그날 그가 행한 역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론은 그날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예복을 벗었습니다. 그 행동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의 모든 신적 영광, 거룩 및 아름다움을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신을 씻을 때 (자신을 낮추심으로) 신적 영광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였으며, 씻은 후 다시 나타나시어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은 것은, 그가 겸손으로 옷 입은 것을 상징합니다. 겸손한 인간이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론은 모든 대속 행위를 마친 후 성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늘의 영광이 담긴 왕의 예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하시어 성부의 오른편으로 돌아가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속죄일의 상징에서 이것을 의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희생적 사역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9절은 속죄일에 일어난 일들이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되었나?

우리는 속죄의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실제로 멀리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단지 상징적이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염소의 머리에 옮긴 이스라엘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영 밖으로 나간 죄는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인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의 죄는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 용서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광야로 나간 염소 머리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염소의 머리 위에 계속 남아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염소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믿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한결같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처리하신 어떤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든지 못 했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의식을 자신의 것으로 적용한 사람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했고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덮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처리할 것이다.”

매년 염소 한 마리가 희생됨

매년 축적된 죄를 위해 염소 한 마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1400년 역사상 엄청난 염소 떼가 희생된 것인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큰 교훈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1400마리의 염소를 광야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그냥 광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갈보리 십자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 1400년 역사에 축적된 죄를 그들의 머리에 진 염소 떼에 둘러싸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 한 마리 염소의 머리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범한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400년 역사를 통해 축적된 죄가 1400 마리 염소의 머리에서 예수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는 그 모든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짓값이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로 치러진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가 백성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곳입니다. 그것이 나무에 달린 그의 몸이

었습니다. 세상의 죄가 거기서 덮어졌습니다.

삼 일 후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다

삼 일 후 예수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사셀을 위한 염소 곧 죄를 강력하게 제거하는 염소가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십 일 후 예수님의 성부의 오른 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으로서 영화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의 옷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이 모든 속죄일 의식을 통해 이것이 예언되었음이 분명하며, 희생 및 제사장과 관련된 의식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관대하게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을 준비하셨지만, 실상은 이렇게 말씀하신듯합니다. “내가 이 동물을 너희를 대신하여 받을 것이다. 그 동물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대신하는 예수의 희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젖값을 완전하게 치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전 과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가 담당하셨음을 인정하고, 그가 또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손에 못을 박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까지 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모든 면에서 그를 죽인 것은 우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도 요약

그럼, 이제 본 과정에서 배운 모든 희생을 한데 묶어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희생이 각기 다른 희생이 모든 면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 율법의 여러 희생 곧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일 희생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잃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이미 죄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무죄해야만 했습니다.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결한

전 생애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표징과 계속되는 번제의 상징을 성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 성결과 성화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불이 꺼진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무죄한 희생이 되게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로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죄 없는 희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갈 때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악행을 그에게 지울 수 있었고, 마치 그가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죄악을 범한 것처럼 벌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흠 없고 완전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갈보리의 피 아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무죄로 보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속을 드리셨으므로, 사람은 이제 예수가 드린 희생 제사의 첫 열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소제로 이루셨습니다. 그 후 사람은 하나님과 한때 가졌던 화평한 관계를 회복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온갖 좋은 영적 축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화목제이기 때문입니다. 잔칫상, 어린양의 혼인 잔치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9).

이 모든 희생의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도 성취되었습니다. 아론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성취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계속 지켜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